

# 문제은행

국어영역 | 고전 시가

## 정답과 해설



책 속의 가접 별책 (특허 제 0557442호)

- '정답과 해설'은 본책에서 쉽게 분리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므로 유통 과정에서 분리될 수 있으나 파본이 아닌 정상제품입니다.
- 표지에 사용된 코팅액에는 향균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비상교육

## 기본 정과정

본문 24~25쪽

1 ③ 2 ③ 3 ②

개념 확인 문제 1 여성 2 접동새

**개념 연계** **개념 1** **고전 시가의 화자** : '정과정'은 여성 화자의 목소리로 임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다. 작가가 여성 화자를 설정하여 정서를 드러내고자 한 이유가 무엇인지 주목하며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 정서, '정과정(鄭瓜亭)'

[갈래] 고려 가요

[해제] 이 작품은 고려 의종 때, 작가가 귀양지인 동래에서 임금의 소환을 기다리다가 소식이 없자 지어 부른 노래로, 자신의 결백함을 밝히고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형태상으로는 11행이지만 8행과 9행을 한 행으로 본다면 10구체 향가와 그 형태가 비슷하고, 내용상으로도 10구체 향가와 같이 세 개의 의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낙구에 '아소'와 같은 감탄사를 두어 시상을 전환하며 마무리하고 있다는 점도 이 작품이 형식 면에서 볼 때, 10구체 향가의 전통을 잇고 있는 향가에 고려 가요임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주제] 자신의 결백함에 대한 주장과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절

[작품 핵심 보기]

• 여성 화자의 설정

표면적	임에게 버림받은 여성 화자가 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노래함.
이면적	남성인 작가가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고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절을 노래함.

• 화자의 정서 표현 방식

결백의 호소 (1~4행)	자연물(접동새, 잔월효성)을 활용하여 표현함.
결백에 대한 해명 (5~10행)	자신의 결백을 직접적으로 진술함.

**1** 화자는 10행에서 자신을 잊은 듯한 임의 행동을 탓하며 원망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ㄴ). 그리고 7, 8행에서 화자는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으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고 하며 임에게 직접적으로 자신의 결백함을 호소하고 있다(ㄷ).

[오답 풀이]

ㄱ. 화자는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며 임이 다시 자신을 사랑해 주기를 바라고 있을 뿐, 임이 평안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있지는 않다.

ㄴ. 화자는 임과 재회할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으므로, 화자가 임과의 재회를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이 작품은 유배지에서의 자신의 고독한 처지와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정을 사랑하는 이에게 버림받은 여인이 임을 그리워하는 심정에 의탁하여 표현한 충신연주지사이다. 작가와 성(性)이 다른 여성 화자를 설정함으로써 임금을 다시 모시고 싶다는 신하로서의 충정을 보다 애뜻하고 절실하게 전달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아으', '아소'와 같은 감탄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이 작품의 갈래적 특성을 보여 주는 것일 뿐 독자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② '잔월효성(殘月曉星)'은 새벽녘의 달과 별로 초월적 존재인 천지신명을 가리킨다. 그러나 이는 화자의 결백을 증명해 주는 존재일 뿐, 화자의 정서를 애뜻하게 드러내는 장치나 독자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④ 6행과 10행에 나타난 물음의 형식은 화자가 각각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거나 원망의 정서를 표출한 것일 뿐, 독자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⑤ 9행의 '슬웃븐더'는 화자의 슬픔이라는 정서를 직접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을 뿐, 화자의 정서를 보다 애뜻하고 절실하게 표현하는 특별한 장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은 임에게 버림받은 화자의 한이 이입된 대상으로 정한(情恨)의 표상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 역시 아홉 동생을 두고 억울하게 죽은 누나의 한(恨)을 상징하고 있으므로 정한(情恨)의 표상으로 기능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은 임이 자신을 찾지 않는 현재 화자가 느끼는 슬픈 감정이 이입된 대상이며 ㉡는 죽은 누나의 한이 담긴 대상이므로, 모두 과거 화상의 매개체로 볼 수 없다.

③ ㉠은 화자의 슬픈 감정이 이입된 대상이나, ㉡는 억울하게 죽은 누나의 화신이므로 화자의 감정이 투영된 대상이 아니며 화자와 동일시될 수 없다.

④ ㉠은 화자의 한이 투영된 존재일 뿐 화자가 동경하는 대상이 아니며, ㉡ 역시 죽은 누나의 한이 담긴 존재일 뿐 화자가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대상이 아니다. 화자는 죽은 누나의 화신인 접동새를 보고 슬퍼하고 있다.

⑤ ㉠은 임에게 버림받은 화자의 슬픈 정서가 이입된 대상으로 화자의 내적 성찰을 유도하고 있지 않다. ㉡ 역시 누나의 억울함과 한을 드러낼 뿐 화자의 내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지 않다.

| 보기 | 작품 분석

김소월, '접동새'

[갈래] 자유시, 서정시

[해제] 이 시는 계모로 인해 억울하게 죽은 누나의 비극적인 이야기(설화)를 차용하여 애절한 혈육의 정을 표현한 작품이다. 민요적 가락을 살리면서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한(恨)의 정서를 잘 그리고 있다. 의붓딸에 대한 계모의 학대와 죽은 혼의 환생, 그로 인한 한의 표출 등 소재와 정서 면에서 우리 문학의 전통을 충실히 계승하고 있다.

[주제] 현실의 비극적 삶을 초월하려는 혈육의 정

지식 더하기

'정과정'의 창작 배경

의종의 이모부였던 정서는 역모에 가담했다는 모함을 받아 귀양을 가게 된다. 이에 의종은 "오늘의 행차는 조정의 뜻에 의하여 어쩔 수 없는 일이나, 가 있으면 오래지 않아 다시 부르겠다."라고 하였다. 정서는 귀양 가서 임금의 부름을 기다리며 살았으나 20년이 되도록 소식이 없자 의종에게 자신의 억울함과 결백을 호소하기 위해 이 작품을 지었다고 한다. '과정(瓜亭)'은 정서의 호로, 정서는 이 작품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결백을 호소하고, 임금이 다시 자신을 불러 주기를 소망하고 있다.

## 심화 속미인곡

본문 26~27쪽

1 ④ 2 ② 3 ⑤

**개념 연계** **개념 1** **고전 시가의 화자** : 고전 시가에서는 화자와 청자의 대화 형식으로 시상을 전개하는 경우가 있다. '속미인곡'은 중심 화자와 보조적 화자가 등장하여 화자와 청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작품 속에서 화자와 청자가 어떤 방식으로 대화를 주고받는지, 그리고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파악하며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 정철, '속미인곡(續美人曲)'

[갈래] 서정 가사, 양반 가사, 정경 가사

[해제] 이 작품은 '사미인곡'의 속편으로, 작가가 동인의 탄핵을 받고 고향인 전남 창평에 낙향해 있을 때 지은 연군 가사이다.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입과 이별한 한 여인의 애달픈 심정에 의탁하여 표현하고 있는 이 작품은 '사미인곡'에 비해 순우리말의 묘미를 잘 살렸다는 평을 받고 있다. 또한, 화자의 독백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는 '사미인곡'과 달리 보조적 인물을 설정하여 두 여인 간의 대화체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주제] 임금을 그리워하는 정

[작품 핵심 보기]

- 대화 형식에 의한 시상 전개

갑녀	〈보조적 화자〉 • 질문과 위로의 말로 을녀의 하소연을 유도함. • 시상 전개와 종결을 위한 기능적 역할을 함.
↑ ↓ 대화	
을녀	〈중심 화자〉 • 질문에 응하여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며 정서적 분위기를 주도함. • 작가를 대변하고, 주제를 구현하는 중심적 역할을 함.

• '낙월'과 '구준비'의 의미상 차이점

낙월	• 임 계신 곳을 멀리서 바라보며 잠깐만 비추는 존재임. • 임과의 재회가 이루어질 수 없으리라는 체념적 태도를 보이는 '을녀'의 소극적인 사랑을 의미함.
구준비	• 오랫동안 내리면서 임금의 옷을 적실 수 있을 만큼 임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존재임. • '을녀'의 애타는 마음을 임에게 전달하기 위해 '갑녀'가 제안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인 사람을 의미함.

**1** 이 작품은 계절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시어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계절의 변화가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화자는 임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변함없이 일관되게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 이 작품은 4음보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이 작품은 중국 고사를 인용하지 않고 순우리말의 묘미를 잘 살려 화자의 정서를 소박하고 진실하게 표현하고 있다.
- 이 작품에서는 시상의 전개와 종결을 위한 기능적 역할을 하고 있는 보조적 화자(갑녀)를 설정하여 임을 그리워하는 화자(을녀)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 임금 곁을 떠난 신하의 처지를 임에게 버림받은 여인에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그 애절함을 더하고 있다.

**2** 이 작품은 두 명의 화자가 등장하여 각각 화자와 청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대화를 하고 있다. 그러나 〈보기〉는 한 명의 화자가 청자에게 일방적으로 말을 건네고 있다. 즉, 이 작품은 〈보기〉와 달리 대화 형식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이 작품은 '각시', '너'로 구체적인 청자가 설정되어 있고, 〈보기〉 역시 '벗님네'로 구체적인 청자가 설정되어 있다.
- 이 작품과 〈보기〉는 모두 사립인 청자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의인화된 청자가 나타나 있지 않다.
- 〈보기〉의 화자는 청자에게 말을 건네고 있지만,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으므로 내용상 독백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은 두 명의 화자가 대화를 주고받는 형식이므로 화자의 독백으로 보기는 어렵다.
- 이 작품은 두 명의 화자가 등장하여 각각 화자와 청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보기〉에서는 화자가 '벗님네'라는 청자에게 말을 건네고 있다. 따라서 이 작품과 〈보기〉 모두 한 화자가 청자의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보기] **작품 분석**

안조원, '만언사(萬言詞)'

[갈래] 유배 가사

[해제] 이 작품은 관직에 있을 당시 주색에 빠져 국고를 축낸 죄로 귀양을 간 작가가 유배지에서의 고초를 사실적으로 밝히면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는 가사이다. 일반적으로 유배 가사는 연군의 정이나, 변함없는 충성심 등이 주된 내용을 이루나, 이 가사는 유배지에서의 고통과 고달픔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이 작품은 굶주림과 추위로 인한 귀양지에서의 고통스러운 현실과 과거에 지은 죄를 뉘우치는 내용이 진솔한 표현과 세세한 묘사를 통해 잘 나타나 있다.

[주제] 유배 생활의 어려움과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

**3** '낙월(落月)'은 '구준비'와 달리 멀리서 잠깐 임을 바라보다가 사라지는 존재로, 임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없으리라는 체념적 태도를 보이는 화자의 소극적인 사랑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이별의 슬픔을 극복하기 위한 화자의 강한 의지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오답 풀이]

- '천 리(千里)'는 실제의 물리적인 거리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임과의 심리적인 거리감을 나타낸다.
- '반벽(半壁) 청등(靑燈)'은 임이 없는 어두운 밤중에 외로이 밝은 존재로, 임이 부재하는 상황에서 화자의 외로움을 심화시키는 객관적 상관물로 기능하고 있다.
- 현실에서 만날 수 없는 임을 '꿈'속에서나마 만난다는 것은 임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 화자의 외롭고 쓸쓸한 심정을 '어엿은 그림자'만이 나를 따른다는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다.

지식 더하기

조선 전기의 가사

양반 계층이 창작을 주도하였던 조선 전기의 가사는 벼슬길에서 물러나 자연에 묻혀 살아가며 안빈낙도하는 삶을 노래하면서도, 임금의 은혜를 잊지 못하는 '충신연주시사'의 성격을 지닌 작품들이 많다. 조선 전기 가사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정곡인의 '상춘곡', 송순의 '면앙정가', 정철의 '관동별곡', '사미인곡', '속미인곡' 등이 있다.

## 기본 한숨아 세 한숨아~ / 창 내고자 창을 내고자~ / 식어마님 며느라기 닳바~

본문 28~29쪽

1 ② 2 ④ 3 ③

개념 확인 문제 1 평민 2 장형화

**개념 연계** 개념 2 시대와 계층에 따른 화자 : 신분에 따른 사회적 계층이 존재했던 조선 시대에는 작가의 계층에 따라 작품 속에서 보이는 화자의 정서와 태도상에도 차이가 나타난다. (가)~(다)는 모두 조선 후기 평민 계층의 의식과 생활 감정을 노래하고 있는 사실시조이다. 각 작품에 나타난 시적 상황 및 화자의 정서와 태도 등에 주목하며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 가 작자 미상, '한숨아 세(細) 한숨아~'

[갈래] 사실시조

[해제] 이 작품은 조선 후기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노래한 사실시조로, 삶의 고뇌와 시름을 나타내는 '한숨'을 의인화하여 작중 청자로 설정하고 있다. 다양한 장치의 종류와 문 의 부속품들을 장황하게 나열하는 방식을 통해 화자가 느끼는 세상살이의 어려움을 강조하면서도 해학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주제] 그칠 줄 모르는 삶의 시름

[작품 핵심 보기]

• 대상의 의인화와 그 효과

'한숨'을 의인화하여  
해학적으로 표현함.



삶의 어려움을 웃음으로  
승화하여 극복하고자 함.

### 나 작자 미상, '창(窓) 내고자 창(窓)을 내고자~'

[갈래] 사실시조

[해제] 이 작품은 세상살이의 고달픔에서 오는 답답한 심정을 짝 막혀 있는 방에 비유하고, 이러한 심정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을 가슴에 창을 내는 행위로 표현함으로써 기발한 발상을 보여 주고 있다. 실생활과 밀착된 구체적인 소재들을 장황하게 나열함으로써 해학성을 드러내고 있으며, 웃음을 통해 현실의 시름을 극복하려는 민중의 건강한 삶의 태도가 나타나 있다.

[주제] 답답함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작품 핵심 보기]

• '창'의 기능

창이 없을 때

현실의 시름 때문에 답답함.



창이 있을 때

필요할 때마다 여담을 수 있어 답답함이 해소됨.

### 다 작자 미상, '식어마님 며느라기 닳바~'

[갈래] 사실시조

[해제] 이 작품은 화자인 며느리가 자신을 못살게 구는 시댁 식구들을 원망하며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심정을 드러낸 사실시조이다. 생활과 밀착된 소재를 통해 시집 식구들의 성품과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대가족 제도에서 겪는 며느리의 고된 시집살이의 어려움을 소박하면서도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주제] 고된 시집살이에 대한 한탄

[작품 핵심 보기]

• 인물의 비유적 표현

인물	비유된 모습	성격
시아바님	밤나무 썩은 등걸에 난 회초리같이 매서움.	매서움
식어마님	별 썬 쇠뿔같이 말라빠짐.	까다로움
식누님	삼 년 역은 망태의 송곳 부리같이 뽀족함.	날카로움
아들	당피 발에 돌피 난 것과 같이 셋노란 오이 꽃 같은 피똥을 냄.	어리고 병약함.

1 (나)는 화자의 답답한 마음을 '방'에 비유하고, 답답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을 '창'을 여는 것에 빗대어 감정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종장의 '하 답답할 제면'에서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출하고 있는데, 이는 화자 자신의 감정을 드러낸 것이므로 대상에 대한 원망의 심정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가)는 '한숨'을 의인화하여 청자로 설정하고, 그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③ (다)는 종장에서 비유적 표현을 통해 시집 식구들을 희화화하여 묘사함으로써 시집 식구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④, ⑤ (가)~(다)는 모두 종장에서 시어를 장황하게 나열하여 해학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웃음을 유발하고 있으며, 화자의 실생활과 밀착된 소재를 사용하여 친근하고 생생한 느낌을 주고 있다.

2 (가)~(다)의 화자는 모두 자신들이 처한 고달픈 삶의 현실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삶의 애환과 현실의 시름을 해학적으로 극복하려는 낙천적인 삶의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와 (나)에는 현실의 모순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나타나 있지 않다. 또한, (다)의 화자는 시집살이라는 현실의 모순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저항 의지를 보여 주고 있지는 않다.

② (가)~(다)의 화자 모두 시름과 애환을 해학적으로 극복하려 하고 있을 뿐, 자신의 처지를 운명적으로 체념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지는 않다.

③ (다)에는 시집살이의 현실에 대한 풍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으나, (가)와 (나)에는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나 풍자의 태도가 나타나 있지 않다.

⑤ (가)~(다)의 화자 모두 자기 자신을 돌아봄으로써 삶의 고뇌를 초월하려는 의지를 보여 주고 있지 않다.

3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여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는 표현 기법은 고전 시가에서 관습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나)는 가슴에 '창'을 낸다는 불가능한 상황 설정을 통해 답답한 마음을 해소하고자 하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보기> 역시 구운 밤에 싹이 나면 임과 이별하겠다는 불가능한 상황 설정을 통해 사랑하는 임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나)에서는 '창'이라는 대상을 매개로 삼아 화자의 내면적 고뇌를 해소하고자 할 뿐,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이 나타나 있지 않다. <보기> 역시 감정 이입의 대상이 나타나 있지 않으며 화자의 고뇌도 드러나지 않는다.

② <보기>의 '유덕(有德)후신 님을 여히오와지이다'는 앞에 불가능한 상황을 전제로 하여 그 상황이 벌어지면 임과 헤어지겠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즉, 절대로 이별하지 않겠다는 화자의 마음과 반대되는 진술인 반어적 표현이 사용된 것

이다. 그러나 (나)에서는 화자의 심정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을 뿐,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④ (나)와 <보기>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여 화자의 처지와 정서를 드러내고 있을 뿐, 대립적 의미를 지닌 시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⑤ (나)에서는 ‘창’이라는 구체적 사물을 동원하여 화자의 내면적 고뇌를 해소하고자 한다. 그러나 <보기>에서는 ‘구운 밥’이라는 구체적 사물을 동원하여 입에 대한 화자의 변함없는 사랑을 강조하고 있을 뿐, 갈등을 해소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는 않다.

#### 보기 | 작품 분석

작자 미상, ‘정석가(鄭石歌)’

[갈래] 고려 가요

[해제] 이 작품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가정하여 입과 헤어지고 싶지 않은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고려 가요이다. 화자는 반어와 역설의 표현 방식을 통해 이별의 불가능함을 말함으로써 입과의 영원한 사랑을 소망하고 있다.

[주제] 입에 대한 영원한 사랑

#### 지식 더하기

##### 사설시조의 작자층

사설시조는 형식이나 주제는 물론 작자층에서도 평시조와 구별된다. 평시조의 작자층이 양반 사대부 중심이었다면, 사설시조는 가객을 비롯한 평민 계층이 많다. 따라서 평시조에 비해 사설시조는 세태에 대한 풍자와 평민들의 소박한 생활 감정이 솔직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 심화 규원가

본문 30~31쪽

1 ② 2 ② 3 ①

**개념 연계** 개념 2 **시대와 계층에 따른 화자** : 조선 시대는 남존여비(男尊女卑), 여필종부(女必從夫)의 유교적 관념이 지배하는 사회였다. ‘규원가’는 조선 시대 양반 부녀자 계층에 의해 창작되고 향유된 규방(내방) 가사로, 봉건 사회의 가부장적 신분에 따른 유교 질서 속에서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며 독수공방하는 여인의 정서를 노래하고 있다. 작품에 나타난 화자의 내면과 가치관에 주목하며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 허난설헌, ‘규원가(閨怨歌)’

[갈래] 규방(내방) 가사

[해제] 이 작품은 조선 시대 가부장적인 사회 제도하에서 규방에 갇혀 외롭게 살아가는 여인의 한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최초의 규방 가사로서, ‘원부가(怨婦歌)’ 혹은 ‘원부사(怨婦詞)’라고도 한다.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며 속절없이 늘어 가는 여성의 신체 한탄과 남편에 대한 원망을 섬세하고도 우아한 문체로 표현하고 있다.

[주제] 남편에게서 버림받은 여인의 한스러운 삶

[작품 핵심 보기]

• 화자의 정서 표현 방법

자신의 운명에 대한 한탄	다양한 객관적 상관물을 동원하여 표현함.
입에 대한 원망	직설적으로 표현함.

1 ‘옥창(玉窓)에 심근 매화(梅花) 몇 번이나 띄여 진고’를 보면 자연 현상을 통해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ㄱ). 한편 ‘삼춘 화류(三春花柳) 호시절(好時節)의 경물(景物)이 시름업다’를 보면, 자연과 대비되면서 화자의 처지와 정서가 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천상(天上)의 견우직녀(牽牛織女) ~ 소식(消息)조차 끄쳤는고’를 보면, 견우직녀와 대비되면서 화자의 처지와 정서가 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ㄴ).

#### 오답 풀이

ㄴ. 반어적 표현은 실제로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와 반대로 진술하는 것으로 이 작품에는 반어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ㄷ. ‘소상 아우(瀟湘夜雨)의 뗏소리 섯도는 듯’, ‘화표(華表) 천년(千年)의 별학(別鶴)이 우니는 듯’에서는 고사를 인용하여 처량한 거문고 소리를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대상을 직접 빗대는 직유법이 사용되었으나, 대상에 대한 시각적 인상이 아니라 청각적 인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2 이 작품의 화자는 남편의 사랑을 잃고 독수공방하면서 스스로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다. 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는 화자의 모습은 나타나 있으나, 남편이 오지 않는 상황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원근(遠近)을 모르거니 소식(消息)이야 더욱 알랴’에서 남편이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은 채 소식조차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박명(薄命)한 홍안(紅顔)이야 날 가뜰서 또 이실가’에서 화자는 남편의 사랑을 잃고 독수공방하는 자신의 처지와 기구한 운명을 한탄하고 있다.

③ 마지막 구인 ‘아마도 이 님의 지위로 살 동 말 동 허여라’에서 화자는 임 때문에 살 수 없다고 하며 남편에 대한 원망의 심정을 직접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④ ‘인연(因緣)을 굶쳐신들 심각이야 업술소냐. / 얼굴을 못 보거든 그림기나 마르려문’에서 화자가 남편을 여전히 그리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삼삼오오(三三五五) 아유원(冶遊園)의 ~ 어디어디 머무는고’에서 남편이 화려한 차림새를 하고 기생집에 드나들며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것을 염려하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3 겨울밤에 내리는 차가운 ‘자취눈’은 화자의 쓸쓸한 감정을 한기시켜 그 정서를 더욱 심화하는 대상으로 ㉠에 해당하며, 가을 밤에 슬피 우는 ‘실솔(蟋蟀)’은 임을 기다리는 화자의 외로운 심정이 이입된 대상으로 ㉡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②, ③ ‘구준비’, ‘모운(暮雲)’, ‘초로(草露)’, ‘자취눈’은 임이 없어 외롭고 쓸쓸한 화자의 심회를 더욱 심화하는 대상으로 모두 ㉢에 해당한다.

④, ⑤ ‘실솔(蟋蟀)’과 ‘새소리’는 임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화자의 서글픈 감정이 이입된 대상으로 모두 ㉡에 해당하며, ‘구준비’는 화자의 쓸쓸한 감정을 환기하는 대상으로 ㉠에 해당한다.

#### 지식 더하기

##### 규방 가사

조선 시대 양반 부녀자들이 주로 향유했던 가사의 갈래로, 봉건적 제도에 속박된 여성의 삶과 그 정서를 호소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가사는 4·4조, 4음보의 연속체 교술 문학으로서 여성 화자의 신체 한탄이나 개인의 사연을 소개하는 데 적합한 문학 양식으로 볼 수 있다. 규방 가사는 많은 여성들에게 향유되면서 그들의 의사소통 통로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 기본 단가 육장

본문 32~33쪽

1 ① 2 ④ 3 ⑤

개념 확인 문제 1 매화 2 임금

**개념 연계 개념 3 관습적 의미의 시어** : 고전 시가에서는 관습적 의미의 시어를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 및 태도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단가 육장’은 임금에 대한 충절을 다룬 작품에서 자주 등장하는 관습적 상징을 적절히 활용하여 화자의 처지와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인목 대비 폐위에 반대 상소를 올렸다가 유배 생활을 하게 된 작가가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 작품에 등장하는 자연물의 상징적 의미를 파악하며 이해해 보도록 한다.

## 이신의, ‘단가 육장(短歌六章)’

[갈래] 평시조, 연시조

[해제] 이 작품은 작가가 유배 생활에서 느낀 시름과 외로움,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정 등을 담아낸 단가(短歌) 6수의 연시조이다. 작가는 광해군 때 인목 대비의 폐위를 반대하는 상소문을 올렸다가 함경도 회령으로 유배되었는데, 그때의 심정이 잘 드러나 있다. 자연물에 관습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화자의 처지와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조선조 사대부 시가의 일반적인 작품 경향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주제] 유배 생활의 고달픔과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정

[작품 핵심 보기]

• 시어의 의미

솔	유배된 충신들	제비	• 자유로운 존재로 화자의 처지와 대조됨. <제3장> • 시름이 많은 존재로 화자의 감정이 이입됨. <제4장>
우로	임금의 은혜		
명월	유정하고 반가운 벗		
향기	화자의 지조와 충정		
호접	임금	매화	화자 자신

1 이 글은 시각적 이미지, 청각적 이미지, 후각적 이미지 등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대상에 대한 예찬적 태도는 드러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② ‘아는가 모르는가’, ‘하을 일이 또 있는가’, ‘갓단 말고’, ‘그다지도 날랴시고’, ‘무슨 사설 하는지고’, ‘명월밖에 또 있는가’ 등의 의문형 어미를 사용하여 장부로 할 일에 대한 단호함, 유배된 충신에 대한 안타까움, 유배지에서의 시름과 외로움 등의 정서를 강조하여 표현하고 있다.

③ 제비의 울음소리를 ‘사설’로, 제비를 ‘너’로 의인화하여 유배지에서의 시름 깊은 화자의 심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또 명월을 ‘너’라고 의인화하여 유일한 벗으로 간주함으로써 유배지에서의 외로움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④ ‘어저브’, ‘두어라’ 등의 영탄적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하여 화자 자신의 고조된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

⑤ ‘솔’과 ‘매화’는 지조와 절개라는 관습적 의미를 지닌 자연물로 활용되고 있다. ‘솔’은 남산에 있다 베어진 것으로 인목 대비 폐위에 반대해 유배된 화자 자신과 화자의 상황을 나타내며, ‘매화’는 힘든 유배 생활 속에서도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절을 지니는 화자의 상황과 태도를 나타낸다.

2 ‘종일 하는 말이 무슨 사설 하는지고’는 시름을 풀어내는 제비를 통해 인목 대비 폐위에 대한 반대 상소를 올려 귀양 온 화자의 처지에 대한 시름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을 상소를 올린 자신의 행위를 자책하는 회한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제2장>에 나타난 ‘효제충신(孝悌忠信)’은 작가가 인목 대비 폐위를 반대하면서 내세운 유교적 명분으로 볼 수 있다.

② ‘부근(斧斤)’은 솔(충신)을 베어 낸 도끼를 의미하므로 작가는 ‘난(亂) 후 부근(斧斤)이 그다지도 날랴시고’라는 우의적 표현을 통해 광해군과 대북파의 무자비한 정적 제거 작업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제2장>에서 광해군과 대북파에 의해 제거 당한 정적들을 ‘솔’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이들을 충신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보기>에서 작가는 유배지에서도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두어라 우로(雨露) 곧 깊으면 다시 불까 하노라’는 제거 당한 충신들이 임금의 은혜를 입어 다시 등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드러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⑤ <제6장>에 나타난 ‘여원 꽃(매화)’은 유배지에서 실의와 절망에 빠져 있는 작가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다. 그리고 <보기>에서 작가는 유배지에서의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도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절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석인 꽃 여원 속에 잦은 것이 향기(香氣)로다’는 유배지에서의 실의와 절망 속에서도 임금에 대한 작가의 변함없는 충절을 드러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은 자유로운 이미지로, 유배지에 묶여 있는 화자 자신의 처지와 대조된다. 화자는 그런 제비를 바라보면서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반면, ㉡는 유배지에서 시름을 겪고 있는 화자 자신의 감정이 이입된 존재로, 화자의 처지와 동질적인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과 ㉡는 모두 제비를 통해 자신의 처지를 반추하고 있으므로 화자의 시선이 모두 내면에 향해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과 ㉡에 함축된 화자의 주된 정서는 유배 생활을 하는 현재의 처지에 대한 시름으로, 영화로웠던 과거의 삶에 대한 염원이나 임금의 부름을 다시 받는 미래의 삶에 대한 염원을 환기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③ ㉠은 유배지에서의 화자의 시름을 심화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는 화자의 시름을 투영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④ ㉠은 화자의 처지와 대조적인 존재이므로 화자와의 거리가 멀게 느껴지게 한다고 할 수 있으며, ㉡는 화자의 처지와 동병상련의 입장에 있으므로 화자와의 거리가 가깝게 느껴지게 한다고 할 수 있다.

## 심화

## 구름이 무심톤 말이~ / 국화야 너는 어이~ / 이 몸이 주거 가서~

본문 34~35쪽

1 ⑤ 2 ② 3 ⑤

**개념 연계 개념 3 관습적 의미의 시어** : 고전 시가에서는 대상의 기본 속성을 바탕으로 의미가 고정되어 보편화된 관습적 상징이 자주 쓰인다. (가)~(다)에서도 ‘구름’, ‘국화’, ‘낙락장송’ 등 관습적 의미를 지닌 시어가 사용되고 있다. 각 작품에 사용된 관습적 시어의 의미를 파악하며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 가 이존오, '구름이 무심(無心)툰 말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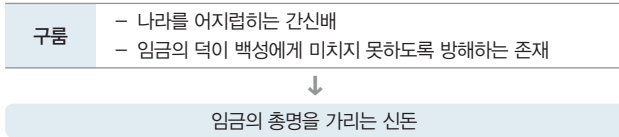
[갈래] 평시조

[해제] 이 작품은 공민왕을 현혹하여 국정을 어지럽게 하고, 임금과 백성 사이를 멀어지게 만든 신돈의 의롭지 못한 행위를 풍자한 시조이다. 임금의 총명을 '날 빛(해)'에 비유하고, 그 햇빛(공민왕)을 가리는 간신을 '구름'에 비유하여 임금의 은혜가 백성과 신하들에게 미치지 못함을 개탄하고 있다.

[주제] 간신 신돈의 횡포 풍자

[작품 핵심 보기]

• '구름'의 상징적 의미



## 나 이정보, '국화(菊花)야 너는 어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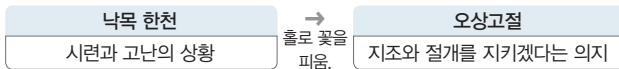
[갈래] 평시조

[해제] 이 작품은 서릿발을 이겨 내고 가을에 홀로 피는 국화를 선비의 높은 지조와 절개에 비유하여 예찬하고 있는 시조이다. 평온한 시절을 거부하고 시련과 고난의 시절에 피어나는 국화를 통해 절개를 지키는 삶에 대한 작가의 신념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국화의 지조와 절개 예찬

[작품 핵심 보기]

• '국화'의 상징적 의미



## 다 성삼문, '이 몸이 주저 가서~'

[갈래] 평시조

[해제] 이 작품은 작가 성삼문이 단종의 복위를 꾀하려다가 죽임을 당할 때 읊은 시조로, 단종에 대한 변함없는 절개를 소나무에 빗대어 드러내고 있다. '백설'이 가득한 혹은 속에서 곧고 푸른 '낙락장송'이 되겠다는 신념을 드러냄으로써, 변함없는 절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주제] 지조와 절개에 대한 다짐

[작품 핵심 보기]

• '백설'과 '낙락장송'의 상징적 의미



1 (가)의 '구름'은 임금의 총명을 흐리게 하는 간신을 상징하고, (나)의 '국화(菊花)'는 시련을 꿋꿋이 견뎌 내는 선비의 높은 지조와 절개를 상징한다. (다)의 '낙락장송(落落長松)', 즉 '소나무'도 (나)의 '국화'와 같이 선비의 지조나 절개를 상징한다. 이와 같이 (가)~(다)는 모두 관습적인 의미를 지닌 시어를 활용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다)에서는 '백설(白雪)'의 흰색과 '낙락장송(落落長松)'의 청색이 색채의 대비를 이룬다고 할 수 있으나, (가)와 (나)에는 색채의 대비가 나타나 있지 않다.

② (가)와 (나)는 각각 '구름'과 '국화(菊花)'를 인격을 지닌 존재로 의인화하고 있다. (나)는 지조와 절개의 상징인 '국화'를 인격화하여 친근감을 부각한다고 볼 수 있으나, (가)에서 '구름'은 간신 신돈을 의미하므로 대상을 인격화하였지만 친근감을 부여한다고 볼 수 없다. (다)에는 대상을 인격화한 표현이 드러나지 않는다. ③ (가)~(다) 모두 사상 전개에 자연물을 활용하고 있다. (가)에서는 '구름'이라는 자연물을 활용하여 간신 신돈을 풍자·비판하려는 의도가 드러나지만, (나)와 (다)는 자연물을 통해 대상에 대한 비판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④ (나)에서는 의인화된 국화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으며, (가)와 (다)에서는 화자의 독백적 어조로 사상을 전개하고 있다.

2 (나)에서 화자는 따뜻한 봄날을 다 보내고 낙엽이 지는 추운 날 홀로 피어난 국화를 예찬하고 있다. 화자는 자신도 국화처럼 곳곳하게 지조와 절개를 지키며 살아야겠다는 신념을 다짐하고 있으므로 숭고한 삶의 태도를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가)는 임금의 총명을 가리는 간신 신돈의 횡포를 풍자하고 경계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으므로, 화자가 소탈하고 욕심 없는 삶을 다짐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나)는 국화가 지닌 생태적 속성을 바탕으로 사상을 전개하고 있지만 존재의 소외감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국화의 미덕인 지조와 절개를 강조한 것이다. ④ (가)는 국가라는 공동체를 걱정하는 마음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헌신의 자세는 드러나 있지 않으며, (나)는 화자 자신의 삶의 자세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공동체에 대한 헌신을 다짐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⑤ (가)는 자연물을 활용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부정적 세력을 풍자하고 있으므로 화자의 자연 친화적 자세가 드러나 있지 않으며, (나)는 자연물인 국화의 미덕을 예찬하고 있지만 이를 자연 친화적 자세를 강조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다)에서 '백설(白雪)'은 겨울의 추위를 가리키는 말로, 고통과 시련을 이겨 내고 지조와 절개를 지키겠다는 화자의 굳은 의지를 강화하는 소재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보기>에서 화자는 '홍진(紅塵)', 즉 속세에 사는 사람들에게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는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보기>의 화자가 '홍진(紅塵)'으로 인해 갈등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다)에는 '백설(白雪)'을 통해 겨울의 계절감이, <보기>에는 '새봄', '도화 행화(桃花杏花)', '녹양방초(綠楊芳草)' 등을 통해 봄의 계절감이 잘 나타나 있다. ② (다)에서는 화자 자신만의 의지를 부각하고 있는 데 반해, <보기>에서는 자신의 삶을 '홍진'의 사람들 및 '옛사람'과 비교하고 있다. ③ <보기>는 '홍진'에 묻힌 사람들을 청자로 설정해 그들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사상을 전개하고 있으나, (다)는 화자의 독백 형식으로 사상을 전개하고 있다. ④ (다)의 화자는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지조를 지킬 것을 다짐하는 비장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보기>의 화자는 봄의 생명력 넘치는 자연을 즐겁게 감상하는 흥취를 드러내고 있다.

— 보기 | 작품 분석

정극인, '상춘곡(賞春曲)'

[갈래] 서정 가사, 정경 가사

[해제] 이 작품은 봄의 경치를 완상하는 화자의 모습을 바탕으로 자연을 벗삼아 안빈낙도하는 삶의 즐거움을 표현하고 있는 가사이다. 강호가도(江湖歌道)를 노래한 첫 가사로 평가되며, 강호가도의 시풍은 이후 송순의 '면앙정가'나 정철의 '성산별곡'으로 그 맥이 이어지게 된다.

[주제] 봄의 완상과 안빈낙도

## 기본 집방석 내지 마라~ / 청산은 내 뜻이오~ / 오백 년 도움지를~

본문 36~37쪽

1 ② 2 ① 3 ②

개념 확인 문제 1 대비(대조, 대립) 2 영원성, 가변성

**개념 연계 개념 4 대조적 의미의 시어** : 고전 시가에서는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대조적 의미의 시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가)~(다)는 서로 대비되는 속성을 지닌 대상들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작품에 드러난 대조적 의미의 시어를 파악하며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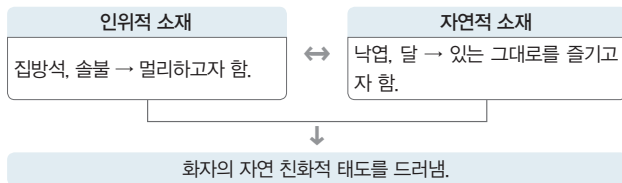
### 가 한호, '집방석(方席) 내지 마라~'

[갈래] 평시조

[해제] 이 작품은 자연 속에서 소박한 풍류를 즐기며 안빈낙도하는 삶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시조이다. 화자는 인공적인 모든 것과 세속의 일에 얽매이지 않고 자연을 벗하며 살고자 한다. 달빛 아래 낙엽에 앉아 한 잔의 술을 마시는 화자의 풍류에서 자연과 인간의 합일의 경지를 느낄 수 있다.

[주제] 산촌 생활의 소박한 즐거움

[작품 핵심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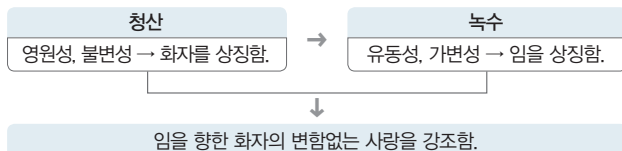
### 나 황진이, '청산(靑山)은 내 뜻이오~'

[갈래] 평시조

[해제] 이 작품은 임에 대한 사랑을 자연물에 비유하여 임도 자신을 잊지 않으면 하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는 시조이다. 변치 않는 존재인 '청산(靑山)'은 화자를 상징하고, 변화하는 존재인 '녹수(綠水)'는 임을 상징한다. 이 작품은 이러한 자연물의 대비를 통해 임에 대한 화자의 변함없는 사랑을 잘 드러내고 있다.

[주제] 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

[작품 핵심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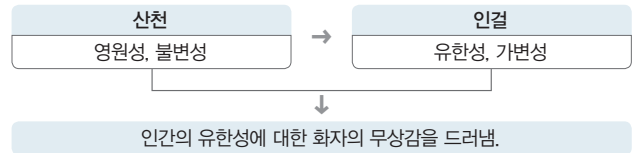
### 다 길재, '오백 년(五百年) 도움지(都鄙地)를~'

[갈래] 평시조

[해제] 이 작품은 고려의 멸망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망국의 한을 노래한 '회고가'로서, 망해 버린 고려의 도움지를 보면서 느끼는 화자의 안타까움과 무상감이 잘 드러나 있다. 자연과 인간의 대비를 통해 인간의 유한성과 그에 따른 무상감을 표출하고 있는데, 고려가 흥성했던 시절에 대한 무상감이 '꿈'이라는 비유로 형상화되어 있다.

[주제] 고려 왕조에 대한 회고와 인생무상

[작품 핵심 보기]



1 (가)에서는 '집방석(方席)'과 '낙엽(落葉)', '술볼'과 '달'이 대조를 이루고, (나)에서는 '청산(靑山)'과 '녹수(綠水)', 그리고 (다)에서는 '산천(山川)'과 '인결(人傑)'이 각각 의미상 대조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가)~(다)는 의미상 대비가 되는 시어를 사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는 자연적인 것을 추구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므로 자연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나)와 (다)에는 자연과 관련한 시어가 나타날 뿐, 이것이 자연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③ (나)에서는 화자가 자신과 임의 뜻을 비교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으나,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가)와 (다)에서는 대상과 화자의 처지를 비교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④ (나)는 화자가 자신을 '청산(靑山)'에 비유하여 임도 자신을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대상과 화자 자신을 동일시하여 정서를 드러내고 할 수 있으나, (가)와 (다)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⑤ (가)~(다) 모두 특정한 대상을 통해 자신의 소망을 이루고 싶어 하는 화자의 의도를 찾아볼 수 없다.

2 (나)에서 '청산(靑山)'은 임에 대한 화자의 변함없는 마음을 비유한 것이다. 하지만 (다)의 '산천(山川)'은 옛 고려의 산과 강, 즉 자연 그 자체를 의미하므로 특정 대상을 비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② (다)에서 '산천(山川)'은 변하지 않는 존재로 인간의 유한성을 나타내는 '인결(人傑)'과 대비되어 인간사의 무상함을 강조하고 있지만, (나)의 '녹수(綠水)'는 변하는 존재로 인간 세계의 유한성과는 관련이 없다.

③ (나)의 '님'은 화자가 그리워하며 사모하는 존재이지만, (다)의 '인결(人傑)'은 패망한 고려의 유신들을 의미하므로 화자가 흠모하는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④ (나)는 임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다)는 망국의 한을 그리고 있으므로 (나)와 (다) 모두 이상향에 대한 동경이 드러나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⑤ (나)와 (다) 모두 화자의 시선이 '근경에서 원경' 또는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동되며 시상이 전개되고 있지 않다.

3 ①은 '어제 진' 달이기는 하지만 화자가 이를 통해 과거를 회상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④는 화자에게 자신의 고독을 털어 주는 대상으로 인식되기는 하지만 화자에게 현재의 삶을 성찰하게 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①은 순수한 자연물로서, 인공적인 소재인 '술볼'과 대비된다. 또한 ③는 '날 추즈리'가 없는 상황에서 대신 화자의 벗이 되어 주는 존재이므로 이와 대비된다 고 볼 수 있다.



③ ①은 화자가 있는 그대로를 즐기고자 하는 자연물이고, ④는 화자와 벗으로 기능하는 자연물이므로 모두 화자의 자연 친화적 태도를 드러내는 소재라고 볼 수 있다.

④ (가)는 <보기>에 비해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보기>의 화자는 ④를 벗 삼아 자연 속에서 조용히 살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가)의 화자는 달빛 아래 낙엽에 앉아 술을 마시며 풍류를 즐기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①은 화자가 풍류를 즐길 수 있도록 ‘술불’을 대신하여 밤의 어두움을 밝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⑤ ④는 화자의 고독을 덜어 주는 대상으로 화자가 벗으로 삼는 대상이므로 화자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①은 화자가 즐기고 있는 대상이지만 화자와 인격적인 교류나 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다.

#### 보기 | 작품 분석

신흥, ‘산촌(山村)에 눈이 오니~’

[갈래] 평시조

[해제] 이 작품은 산촌에서 자연을 벗 삼아 고독하게 살아가는 선비의 모습을 형상화한 시조이다. 세상과 통하는 사람문조차 굳게 닫아걸고 한 조각의 달을 벗 삼아 살아가는 화자의 모습에서 선비의 고고한 정신세계를 엿볼 수 있다.

[주제] 은일자사의 한가로운 정서

## 심화 만흥

본문 38~39쪽

1 ② 2 ② 3 ⑤

**개념 연계** 개념 4 **대조적 의미의 시어** : 고전 시가에서는 ‘자연’과 ‘인간 세상’을 대립적 구도로 설정하여 화자의 자연 친화적 태도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만흥’은 자연에서의 삶과 인간 세상에서의 삶을 나타내는 시어들을 대조적으로 사용하여 자연에 묻혀 사는 즐거움을 부각하고 있다. 대조적 의미의 시어를 바탕으로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을 파악하며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 윤선도, ‘만흥(漫興)’

[갈래] 평시조, 연시조

[해제] 이 작품은 전체 6수로 된 연시조로, 작가가 병자호란 때 왕을 따르며 모시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덕에 유배되었다가 풀려나 해남에 은거하고 있을 때 지은 작품이다. 번잡한 속세에서의 삶을 부러워하지 않고, 비록 소박하지만 유유자적하며 자연과 함께하는 삶의 즐거움을 누리겠다는 화자의 가치관이 담겨 있다. 안빈낙도(安貧樂道)의 자세와 자연과의 물아일체(物我一體)를 느끼며 살아가는 화자의 태도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관념적 지향에 머물던 사대부들의 작품 경향에서 벗어나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살린 뛰어난 작품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주제] 자연에 묻혀 사는 즐거움

[작품 핵심 보기]

• 시어의 대립

보리밥, 풋노물	삼공, 만승
자연에 묻혀 안빈낙도하는 삶	인간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부귀영화를 지닌 삶

• 각 수의 주요 시어와 이에 따른 화자의 모습

	주요 시어	화자의 모습
제1수	쥬집	분수에 맞는 삶
제2수	보리밥, 풋노물	분수에 맞는 삶
제3수	먼 뉘	안빈낙도의 즐거움
제4수	소부, 허유, 님천 한흥	한가로운 삶
제5수	하늘, 강산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
제6수	님군 은혜	임금의 은혜에 대한 감사

1 이 작품에서는 ‘그 나쁜 녀나쁜 일이야 부를 줄이 이시랴’,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리하랴’, ‘만승(萬乘)이 이만하랴’, ‘강산(江山)이 도타 혼들 분(分)으로 누엿느냐.’ 등에서 설의 법을 사용하여 자연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자부심과 임금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ㄱ). 그리고 ‘보리밥 풋노물’, ‘삼공(三公)’과 ‘만승(萬乘)’, ‘소부 허유(巢父許由)’ 등과 같은 대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세속적 삶을 멀리하고 자연 친화적 삶을 추구한다는 작품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ㄷ).

**오답 풀이**

ㄴ. 화자는 자연 속에서 한가롭고 유유자적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므로, 이 작품에서 역동성이나 생동감을 느낄 수 있는 화자의 행동과 모습을 발견하기 어렵다.  
ㄹ. 화자는 자연에 귀의하여 한가롭게 사는 삶을 속세의 삶과 비교하여 자연 속에서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지만, 이를 속세에서의 삶을 풍자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A]에는 세상의 명리(名利)를 초탈한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즉, 세속의 사람들이 산속에서 자연과 벗하며 살아가려는 자신의 뜻을 모르고 비웃더라도, 그에 구애받지 않고 속세를 벗어나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려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A]에서 화자는 남들의 비웃음에 초탈한 모습을 보이며, 남들이 놀리는 것을 걱정하지 않고 있다.  
③ [A]에서 화자는 남들이 자신을 비웃는 것에 대해 초탈하고 있을 뿐, 남들에 대해 평가를 하고 있지는 않다.  
④ [A]에서 화자가 자신의 진정한 의도를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란다거나, 그렇게 되면 남들이 자신을 좋아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할 만한 근거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⑤ [A]에서 화자는 남들의 비웃음에도 구애받지 않고 자신이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3 이 작품에서 ‘쥬집’과 ‘보리밥 풋노물’은 소박한 처소와 음식으로 자연에 묻혀 안빈낙도하는 삶을 드러내고, ‘삼공(三公)’과 ‘만승(萬乘)’은 인간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부귀영화를 지닌 삶을 나타낸다. 그러나 ‘내 성’은 ‘나의 천성’이라는 의미로, 서술어 ‘계으르다’와 호응하여 화자의 겸손한 태도를 나타낸다. 따라서 세속적인 삶이나 자연 속에서의 삶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

## 기본 서경별곡

본문 40~41쪽

1 ④ 2 ③ 3 ③

개념 확인 문제 1 적극적, 직설적 2 사공

**개념 연계** 개념 5 '임'의 의미 : 고전 시가에서 시적 대상으로 자주 등장하는 '임'은 작가가 평민이고 화자가 여성일 때, 주로 사랑하는 이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서경별곡'은 서경에 사는 여인이 임과 이별하며 부르는 노래로, 임과의 이별을 거부하고 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표현하는 화자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 이 시가의 화자가 이별의 상황에서 보이는 태도가 전통적인 여인상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주목하며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 작자 미상, '서경별곡(西京別曲)'

[갈래] 고려 가요

[해제] 이 작품은 '가시리'와 더불어 이별의 정한을 담은 대표적인 고려 속요로, 분장제 형식으로 이별의 슬픔과 애절한 사랑의 감정을 노래하고 있다. 서경과 대동강이라는 구체적 공간을 설정하여 이별의 상황에 처한 화자의 현실적이고 진솔한 정서를 노래했다는 점에서 평민적 서정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주제] 이별의 정한

[작품 핵심 보기]

• 화자의 원망의 정서 표출 방식

표면적 정서	내면적 정서
임을 태워 가는 사공에 대한 원망의 정서를 표출함.	임이 대동강 너머 다른 여인을 만날 것이라고 하며 원망의 정서를 표출함.

• '서경별곡'의 짜임

1연	임과의 이별을 거부하고 임을 따르겠다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남.	여성의 목소리
2연	변치 않는 사랑을 맹세함.	'정석가'의 6연과 동일, 남성의 목소리
3연	떠나는 임에 대한 원망과 걱정	여성의 목소리

1 화자의 감정을 다른 대상에 투영하여 대상이 화자의 정서를 느끼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을 감정 이입이라 하는데, 이 작품은 감정 이입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서경(西京)이 아즐가 서경(西京)이', '닷곤디 아즐가 닷곤디'와 같이 앞의 시구를 뒤에서 반복하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렁디리'라는 후렴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작품에 통일성을 주고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③ '그초리잇가', '노훈다 샤공아', '연즈다 샤공아' 등에 나타나 있다.
- ⑤ 1연에서는 이별의 안타까움을 여성의 목소리로 나타내고 있고, 2연에서는 임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을 남성의 목소리로 나타내고 있고, 3연에서는 떠나는 임에 대한 원망을 여성의 목소리로 나타내고 있어 내용과 어조가 이질적이다. 또한 2연의 내용은 '정석가'의 6연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구전되는 과정에서 첨삭, 중복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이 적층적 성격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에서 화자는 임과의 인연을 끈에 비유하여 바위에 떨어지듯 끊어지지 않는 끈처럼 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변함없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② 화자는 생활 터전인 서경을 사랑하지만 임과 이별하기보다는 길쌈하던 베를 버리고서라도 서경을 떠나 임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것에서 화자가 이별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있고, 사랑을 위해 생업까지도 포기하는 적극적인 성격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 ④ 떠나는 임을 실어 대동강을 건너게 해 준 사공에게 왜 배에 임을 태웠냐고 하며 애꿎은 원망을 하고 있는데, 이는 떠나는 임에 대한 원망을 사공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다.
- ⑤ 화자는 임이 강 건너편에서 새로운 여인을 만나 사랑을 나눌 것을 염려하며 떠나는 임에 대한 집착과 질투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다.

3 [A]는 임과 이별하는 장면으로 화자가 임을 건너게 해 주는 사공을 원망하는 한편, 대동강을 건너가면 임이 다른 여자와 만날 것을 염려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드러나 있다. 따라서 임과의 재회에 대한 소망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 ① 두 작품 모두 화자가 사랑하는 임과 이별하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 ② [A]는 '대동강'이라는 공간적 배경이 제시되어 있고, <보기>는 '남포'라는 공간적 배경이 제시되어 있다.
- ④ <보기>에서는 '슬픈 노래 울먹이네'라는 부분에서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이별의 슬픔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A]는 대동강을 건너 떠나는 임이 곧 다른 여자를 만날 것임을 걱정하고 원망하는 화자의 마음이 나타나 있고, <보기>는 자연과 인간을 대비함으로써 이별의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

- 보기 | 작품 분석

정지상, '송인(送人)'

[갈래] 한시(7언 절구)

[해제] 자연과 인간의 대비를 통해 이별의 정한을 드러낸 한시로 이별의 슬픔을 노래한 시 중 백미로 꼽힐 만큼 서정성이 뛰어난 작품이다. 선명한 이미지와 함축적인 시어를 바탕으로 서경과 서정을 조화롭게 표현함으로써 임을 떠나보낸 화자의 애절함을 잘 드러내고 있다.

[주제] 이별의 슬픔

## 심화 가마귀 눈비 마즈 ~ / 철령 노픈 봉을 ~ / 풍상이 섰거 친 날에 ~

본문 42~43쪽

1 ⑤ 2 ⑤ 3 ③

**개념 연계** 개념 5 '임'의 의미 : 고전 시가에서 작가가 사대부 계층일 경우 작품에 드러나는 '임'은 주로 '임금'을 가리킨다. (가)~(다)에는 시적 대상으로 모두 '임'이 등장하는데, 이때의 '임'은 사대부들의 총칭의 대상인 '임금'을 의미한다. (가)~(다)에 드러난 '임'에 대한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파악하며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 가 박팽년, '가마귀 눈비 마주~'

[갈래] 평시조

[해제] 이 작품은 단층 복위를 꺾었다가 처형된 사육신의 한 사람인 박팽년이 지은 시조이다. 김질이 세조의 명을 받고 옥에 갇혀 있는 박팽년을 찾아가 술을 권하며 이방원의 '하여가'로 회유하려 하자 그 대답으로 지은 것이라고 한다. '가마귀'와 '아광명월(夜光明月)'을 대조하여 주위의 온갖 유혹에도 굽하지 않는 굳은 절개를 노래하고 있다.

[주제] 임을 향한 굳은 절개

[작품 핵심 보기]

• 시어의 대조

가마귀	아광명월
쉽게 변절하는 간신	역경에도 변함없는 충신

## 나 이항복, '철령(鐵嶺) 노끈 봉(峰)을~'

[갈래] 평시조

[해제] 이 작품은 이항복이 인목 대비 폐모론에 반대하다가, 자신의 충언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유배길에 오르게 되자, 조정과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여 귀양 가면서 지은 시조이다.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이입한 자연물인 '구름'을 활용하고 있는데, 유배지로 가면서도 변함없는 충성심을 간직하고 있음을 궁궐에 계신 임금에게 전하고자 하는 작가의 간절한 마음이 드러난다.

[주제] 임금에 대한 충성

[작품 핵심 보기]

• '구름'의 의미

화자	구름
귀양길에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억울한 심정	철령 높은 봉우리를 쉬었다가 넘어감.

## 다 송순, '풍상(風霜)이 섰거 친 날에~'

[갈래] 평시조

[해제] 이 작품은 홍문관에 국화를 보낸 임금의 의도를 받들어 임금에 대한 절개를 지키겠다는 굳은 의지를 노래한 송순의 시조이다. 한때 피었다가 쉽게 지는 '도리(桃李)'와, 바람과 서리가 섞여 치는 추운 날에 피어난 '황국화(黃菊花)'를 대조하여 역경에 굴하지 않고 임금을 향한 굳은 절개를 지키고자 하는 화자의 다짐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정 맹세

[작품 핵심 보기]

• 시어의 대조

황국화	도리
바람과 서리를 극복하고 피어난 국화 → 절개를 지키는 신하	봄날에 잠깐 피었다가 지는 복숭아 꽃, 오얏꽃 → 쉽게 변절하는 신하

1 (가)에서는 '눈비'를 맞아 한때 희게 되었다고 해도 결국은 다시 원래의 검은 상태로 변하는 '가마귀'와 대비하여 임금에 대한 화자의 변함없는 충성심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다)에서는 봄날에만 피는 '도리(桃李)'와 대비하여 시련과 고난에 굴하지 않는 화자의 굳은 절개를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나)에서는 화자의 심정과 대비되는 대상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가)는 임을 향한 굳은 절개를 노래하고 있으므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변치

아니하는 마음'인 '일편단심(一片丹心)'에 주제가 함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나)에서 화자는 임금의 은총을 잃은 슬픔의 눈물을 비로 만들어 임금이 계신 대궐에 뿌려 자신의 충절을 보이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다)에서 '황국화(黃菊花)'는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소재이다. 화자는 임이 황국화를 보내자 임의 뜻을 짐작하고 이를 받들어 절개를 지키겠다고 다짐한다.

④ (가)~(다)의 화자는 모두 임을 향한 충정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임은 화자가 지향하는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2 (다)의 '도리(桃李)'는 '복숭아꽃과 오얏꽃'을 말한다. 복숭아꽃과 오얏꽃은 꽃이 피기 좋은 환경인 봄을 맞아 피어나는 꽃으로, 바람과 서리, 즉 고난과 시련을 이기고 피어나는 '황국화(黃菊花)'와 대조되는데 한때 피었다가 쉽게 지고 마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도리(桃李)'는 세상을 모르는 철없는 인물이 아니라, 지조 없이 쉽게 변절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가마귀'는 '눈비'를 맞아 희게 되지만 다시 검게 본모습으로 변하는 존재이다. 따라서 잠시 숨길 수 있으나 그 부정적 성질은 변함이 없는 간신을 의미한다.

② '아광명월(夜光明月)', 즉 '달'은 어두운 밤일수록 오히려 더 밝게 빛나는 존재이므로 시련의 시기에 더욱 강한 충성심을 보이는 존재라 할 수 있다. 이때 '밤'은 '달', 즉 굳은 지조를 지닌 존재(화자)를 부각하는 배경이 된다고 볼 수 있다.

③ '고신원루(孤臣冤澗)'는 '임금의 신임이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외로운 신하의 원통한 눈물'을 의미하므로 화자가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는 신하임을 함축적으로 보여 준다.

④ '풍상(風霜)'은 바람과 서리이므로 고통과 시련의 시간을 의미하므로 '풍상(風霜)이 섰거 친 날'은 굳은 지조와 절개를 지녀야 건널 수 있는 상황을 함축한다.

지식 더하기

'풍상이 섰거 친 날에~'의 배경 설화

명종이 대궐의 국화를 꺾어 홍문관에 보내고, 이것을 소재로 노래를 지어 바치라고 하였다. 그러나 홍문관 관원들이 마땅히 지을 수가 없어서 속직을 하고 있던 송순에게 부탁하여 지어 올렸더니, 임금이 크게 기뻐하고 상을 내렸다고 한다.

3 (나)에서 '구름'은 유배를 가는 억울한 심정을 이입한 대상으로, 화자는 구름에게 자신의 눈물을 비로 만들어 '구중심처(九重深處)'에 있는 임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였으므로 임에 대한 화자의 심정을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다)에서 '황국화(黃菊花)'는 임이 화자에게 보낸 것으로, 임의 뜻을 화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은 서리가 내린 가을에 피어 계절감을 느끼게 하는 소재로 볼 수 있지만, ㉡은 계절감과는 관련이 없는 소재이다.

② (나)와 (다)는 사상이 일관되게 전개되고 있으며 시적 분위기의 전환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은 임금에게 화자의 진심을 대변할 수 있는 자연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를 통해 화자의 소망을 충족시켜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은 화자가 아니라 '님'의 뜻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⑤ ㉡은 귀양 가는 화자의 억울한 심정이 이입된 대상이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화자의 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고 하기는 어렵다. ㉠도 굳은 지조와 절개를 상징할 뿐, 화자의 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기본 도산십이곡

본문 44~45쪽

1 ④ 2 ③ 3 ③

개념 확인 문제 1 학문 정진 2 설의적

**개념 연계 개념 6 다양한 표현 방식** : '도산십이곡'은 다양한 표현 방식을 활용하여 자연을 즐기는 풍류와 학문에 정진하는 태도를 노래하고 있다. 특히, 전체적으로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는 대구의 표현 방식을 활용하여 시상이 전개된다는 점에 주목하며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 이항,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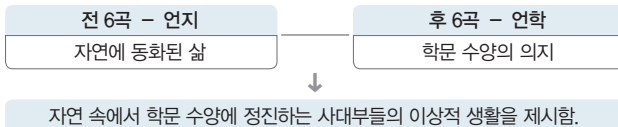
[갈래] 평시조, 연시조

[해제] 이 작품은 조선 중기 사대부들의 자연과 학문에 대한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연시조로,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즐거움과 학문 정진에 대한 의지를 노래하고 있다. 총 12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 6곡은 '언지(言志)'로, 후 6곡은 '언학(言學)'으로 불린다. 전 6곡은 자연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의 생각을, 후 6곡은 학문 수양과 진리 탐구에 대한 생각을 노래하고 있다.

[주제] 자연을 즐기는 풍류와 학문 수양의 의지

[작품 핵심 보기]

• '언지(言志)'와 '언학(言學)'을 통한 주제 의식



1 이 작품에서 화자는 자연 속에서 살아가며 풍류를 즐기는 한편 학문에 정진하고자 하는 자세를 노래하고 있다. 이러한 화자의 삶의 태도는 '이런들 ~ 엇더호료'나 '연하(煙霞)로 ~ 버들 사마', '유란(幽蘭)이 ~ 보디 도해', '청산(靑山)는 ~ 아니노고', '우부(愚夫)도 ~ 어려운가'와 같이 유사한 문장 구조의 짝을 맞추어 늘어놓는 대구법을 통해 강조되고 있다.

2 <보기>를 보면 이항은 벼슬에서 물러나 고향에 은거하며 자연의 풍류를 즐기는 한편, 학문에 몰두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런 삶은 '도산십이곡'에 잘 나타나 있다. '태평성대(太平聖代)에 병(病)오로 늘거 가뇌'는 자연 속에서 걱정 없이 늙어 가는 작가의 처지를 나타낸 것으로,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이라고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 ① '초야 우생(草野愚生)'은 시골에 묻혀 사는 어리석은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작가 자신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 ② '연하(煙霞)'와 '풍월(風月)'은 자연을 대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화자가 향유하고자 하는 대상이다. 따라서 이로써 집과 벼를 삼는다는 것은 고향의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고 싶어 하는 화자의 마음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 ④ '만권 생애(萬卷生涯)로 낙사(樂事) | 무궁(無窮)애래'는 독서를 하는 일의 즐거움을 나타낸 표현이다. 이는 작가가 고향에 서원을 짓고 독서를 하며 제자를 가르치고 학문에 몰두하는 일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우부(愚夫)', 즉 어리석은 사람도 열심히 하면 쉬울 수 있고, '성인(聖人)'도 하지 않으면 어려운 것이 학문이므로, 학문에 끊임없이 정진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3 <언지(言志) 4>에서 화자는 자연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기쁨과 자연 속에서 즐기는 풍류를 노래하고 있다. 따라서 자연물인 ㉠은 화자에게 즐거움을 주는 존재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언학(言學) 5>에서 화자는 끊임없이 학문에 정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노래하고 있다. 따라서 늘 변하지 않는 속성을 지닌 ㉡은 화자에게 깨달음을 주는 존재라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은 아름다운 자연으로서 화자에게 편안함을 주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은 화자에게 더욱 학문에 정진하라는 깨달음을 주는 대상이다.
- ② 이 작품에서 화자는 현재 자연에서의 삶에 만족하며 더욱 학문에 정진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을 뿐, ㉠과 ㉡으로 인해 현재 상황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 ④ 이 작품에서 화자는 자연에 동화된 삶을 살고 있으므로 ㉠은 화자와의 일체감이 느껴지는 소재라 볼 수 있다. 반면 ㉡은 화자로 하여금 학문 정진에 대한 굳은 의지를 다지게 하는 소재일 뿐, 화자와 일체감이 느껴지는지는 알 수 없다.
- ⑤ ㉡은 앞으로 더욱 학문 수양에 몰두하겠다는 화자의 의지와 다짐을 이끌어 낸다고 볼 수 있으나, ㉠은 화자로 하여금 과거를 상기시키게 하지는 않는다.

## 심화 면앙정가

본문 46~47쪽

1 ① 2 ④ 3 ①

**개념 연계 개념 6 다양한 표현 방식** : '면앙정가'는 대구, 은유, 의인, 설의, 열거 등 다양한 표현 방식을 활용하여 면앙정의 사계절 풍경과 자연에 묻혀 사는 삶의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다. 면앙정이라는 공간적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화자의 정서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주목하며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 송순, '면앙정가(俛仰亭歌)'

[갈래] 서정 가사, 양반 가사

[해제] 이 작품은 조선 중종 때 송순이 벼슬에서 물러나 고향인 전라도 담양에 '면앙정'이라는 정자를 짓고 은거하면서 주변 산수의 아름다움을 읊은 가사이다. 면앙정 주위의 아름다운 자연과 사계절의 흥취를 낭만적으로 그렸으며, 임금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함께 표현한 강호가도(江湖歌道)의 대표적 작품이다.

[주제] 면앙정에서 느끼는 아름다운 자연의 정취와 연군의 정

[작품 핵심 보기]

• '면앙정'의 사계절 경치와 군은(君恩)에 대한 감사

봄 정경	흰 구름, 연하(煙霞), 산람(山嵐), 세우(細雨)
여름 정경	녹양(綠楊), 황앵(黃鶯), 수음(樹陰)
가을 정경	즌 서리, 금수(錦繡), 황운(黃雲), 어적(漁笛)
겨울 정경	빙설(氷雪), 경궁요대(瓊宮瑤臺), 옥해 은산(玉海銀山)

+

임금의 은혜에 대한 감사	이 몸이 이렇 굶도 역군은(亦君恩)이샷다.
---------------	-------------------------



## 기본 청산별곡

본문 48~49쪽

1 ② 2 ② 3 ②

개념 확인 문제 1 감정 이입 2 내용

**개념 연계** **개념 7** **감정 이입과 객관적 상관물**: '청산별곡'은 시를 많은 현실 속에서 고독과 비애를 느낀 화자가 이로부터 도피해 청산과 바다의 세계를 지향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특히 이러한 화자의 정서는 자연물에 그대로 투영되어 나타나 있으므로, 시적 맥락을 고려하여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이 무엇인지 찾아보며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 작자 미상, '청산별곡(靑山別曲)'

[갈래] 고려 가요

[해제] 이 작품은 절망적인 현실을 떠나 자연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을 노래한 고려 가요이다. 이 작품의 화자는 현실적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청산'과 '바람'과 같은 이상향을 추구하고 있으나 현실에서의 시름을 술로써 달래는 모습을 보이며 삶의 고뇌와 비애를 드러내고 있다. 이 작품은 여러 가지의 해석이 존재하지만 고려 시대의 혼란스러웠던 사회의 모습과 연관 지어 볼 때 고달픈 현실에서 벗어나 이상향을 꿈꾸는 마음을 노래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주제] 삶의 고뇌와 비애에서 벗어나고 싶은 소망

[작품 핵심 보기]

• 시어의 상징적 의미

청산, 바람	화자의 이상향으로 '물 아래', 즉 현실과 대조되는 공간
새	화자의 분신이자, 화자가 동병상련을 느끼는 감정 이입의 대상
밤	화자가 절대적인 고독과 비애를 느끼는 시간
돌	화자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인간의 숙명적인 고난
설진 강수	현실의 고통과 괴로움을 잊게 하는 매개체

1 이 작품은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나 새로운 이상향을 꿈꾸는 화자의 소망을 그리고 있다. 이러한 주제를 나타내기 위해 다양한 표현 방법을 활용하고 있으나, 계절을 나타내는 시어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 ① '우러라', '우니노라'와 같은 감탄형 어미를 사용하여 화자의 슬픈 감정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영탄적 어조를 통해 화자의 심리가 강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③, ⑤ 이 작품에서 각 연의 끝에는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라는 후렴구가 반복되어 있다. 이러한 후렴구는 시 전체에 통일감과 안정감을 부여하고 있으며, 율리시적인 'ㄹ'과 'ㅇ'이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경쾌한 느낌을 주고 있다.
- ④ '청산'과 '바람'은 화자의 이상향을 의미하고, '물 아래'는 속세를 의미하므로 대조적 의미의 시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대립은 삶의 고뇌와 비애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소망을 그린 작품의 주제 의식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2 '잉 무슨 장글'은 이끼 묻은 쟁기를 뜻하는 말로서 화자가 갈던 밭에서 쓰던 농기구이다. 화자가 이를 가지고 다니며 '물 아래 가던 새'를 보는 것은 현실 극복의 의지라기보다는 속세에 대한 미련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 이 작품에서 화자는 면양정을 짓고 자연에 은거하며 사는 풍류와 임금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줄곧 화자의 독백체 형식으로 전개되므로 대화체를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한다는 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② '불너며 투이며 허이며 이아며', '누으락 안즈락 구부락 저츠락 읊프락 푸람후락'과 같은 시구에서 화자의 행동을 열거하고 있다.
- ③ '천암만학(千巖萬壑)을 제 집을 삼아 두고 나명성 들명성 일히도 구느지고'라는 시구에서 여러 자연물들을 의인화하여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 ④ '시비(柴扉)란 뉘 다드며 뉘 곳초란 뉘 쓸려뇨. 아침이 낮브거니 나조히라 슬 흘소냐'와 같은 시구에서 의문형 어미를 활용한 설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처지를 강조하고 있다.
- ⑤ '황앵(黃鶯) 교태(嬌態) 거워 흑노(黑奴)와 '어적(漁笛)도 흥을 계워'와 같은 시구에서 화자가 느끼는 감정을 '황앵'과 '어적'에 이입하여 표현하고 있다.

2 화자는 [B]에서 '강산풍월(江山風月) 거느리고 내 백 년(百年)을 다 누리면 악양루(岳陽樓) 상(上)의 이태백(李太白)이 사라 오다 호탕(浩蕩) 정회(淸懷)야 이에서 더 홀소냐.'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자신이 자연에 묻혀 그 풍류를 즐긴다면 이태백이 살아온다고 한들 자신의 끝없는 정과 회포보다 낫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로, 자신의 풍류와 회포가 이태백보다 낫다는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화자가 이태백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느낀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② [A]에는 봄에서 겨울로의 계절의 변화에 따른 면양정 주변의 자연 경관과 그 아름다움을 예찬하는 작가의 태도와 감흥이 나타나 있다.
- ③ [B]의 '희황(羲皇) 모을너니 니적(尼寂)이 괴로고야'라는 시구를 통해 작가가 자연과 더불어 사는 현재의 삶을 태평성대로 인식하며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B]의 낙구 '이 몸이 이렇 굶도 역군(亦君)이'를 통해 자연에 묻혀 살면서도 임금의 은혜를 생각하는 화자의 유교적 가치관을 엿볼 수 있다.

3 ⑦은 속세를 떠나왔지만 자연을 즐기느라 한가할 겨를이 없이 바쁜 화자의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①은 '강산풍월(江山風月)', 즉 자연을 가까이 하며 그와 더불어 살아가고 싶은 화자의 소망을 나타내고 있다.

[오답 풀이]

- ② ①에서 화자는 자연을 즐기기에 바쁜 것이지 여러 사람들에게 불려 다니느라 바쁜 것이 아니며 ①은 농사일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 ③ ①에서 화자는 자연을 즐기느라 바쁜 것으로, 이를 자연을 즐기느라 자신의 몸을 돌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①에서 화자는 자연 속에 살고자 하는 소망을 드러낼 뿐, 신선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 노력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④ ①에서 화자는 자연을 즐기는 일에 전념하고 있을 뿐, 학문을 탐구하는 일로 바쁘지 않으며 ①에서 화자는 자연을 가까이 하며 살고자 할 뿐,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삶을 살고자 하는 지향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 ⑤ ①에서 화자는 혼자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고 있을 뿐, 자연의 아름다움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지 않으며 ①에서 화자는 자연물을 개인적으로 소유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3** ㉠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살아가는 화자의 시름이 이입된 대상이다. 즉, 감정 이입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의 ‘파초’와 유사하다. ‘파초’는 조국에 대한 화자의 향수를 ‘가련하다’라는 시어를 통해 투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감정 이입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평’은 개발에 떠밀려 문명 속에서 갑갑하게 살아가는 현대인을 대변하는 존재로 객관적 상관물에 해당한다.
- ③ ‘그릇’은 질서 있고 조화로운 원이지만 언제 깨어질지 모르는 불안한 형태를 가진 대상으로, 화자에게 절제와 균형을 이룬 삶을 추구할 것을 일깨워 준다.
- ④ ‘나뭇배’는 ‘행인’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는 존재로 ‘당신’에 대한 참된 사랑을 지닌 화자를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소재이다.
- ⑤ ‘떡갈나무 숲’은 여러 생명체들을 품어 주는 공동체적인 삶의 공간으로 화자에게 평화와 안식을 제공하는 대상이다.

**심화** 방 안에 췌는 촛불 ~ / 꺾도리 저 꺾도리 ~ / 추야우중

본문 50~51쪽

1 ④ 2 ⑤ 3 ③

**개념 연계** **개념 7** **감정 이입과 객관적 상관물** : (가)~(다)에는 화자가 현재 처한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이 투영된 대상이 나타나 있거나, 화자의 감정을 더욱 심화시키는 대상이 나타나 있다. 각 작품에서 화자의 감정이 이입되거나 화자의 심정을 더욱 심화시키는 대상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가** 이개, ‘방(房) 안에 췌는 촛(燭)불 ~’

**[갈래]** 평시조

**[해제]** 이 작품은 조선 시대 사육신의 한 사람인 이개가 단종이 수양 대군에 의해 영월로 유배를 가게 되었을 때, 단종과 이별하는 아픔을 표현한 시조이다. 임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애타는 마음이 사물에 이입되어 효과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주제]** 임과의 이별의 슬픔

**[작품 핵심 보기]**

• 사물의 의인화를 통한 정서 표현

눈물 흘리는 촛불 → 임과의 이별로 인해 흘리는 눈물

타들어가는 촛불 → 임과의 이별 후 애타는 심정

**나** 작자 미상, ‘꺾도리 저 꺾도리 ~’

**[갈래]** 사설시조

**[해제]** 이 작품은 이별한 임에 대한 그리움을 자연물에 의탁하여 표현한 사설시조이다. 화자는 오지 않는 임을 기다리며 얇은 잠을 깨우는 귀뚜라미를 원망하기도 하지만, 자신의 처지를 이해해 주는 것 또한 귀뚜라미뿐임을 알고 동병상련을 느끼고 있다.

**[주제]** 임에 대한 그리움과 외로움

**[작품 핵심 보기]**

• 화자의 처지와 자연물의 동일시

‘슬픈 소리’로 우는 ‘꺾도리’ = 임과 이별한 화자의 외로운 처지

↓  
화자의 감정을 자연물에 이입하여 동일시함.

**다** 최치원, ‘추야우중(秋夜雨中)’

**[갈래]** 한시(5언 절구)

**[해제]** 이 작품은 비 내리는 가을밤에 자신의 능력을 알아줄 이 하나 없는 외로움을 그린 한시이다. 이 작품의 창작 시기에 관해서는 당나라에서 유학한 최치원이 귀국하기 전으로 보는 견해와 귀국한 후로 보는 견해로 나뉘지만 후자가 더 우세하다. 후자의 견해에 따르면, 이 작품은 귀국 후 정치 개혁을 시도했던 최치원이 자신의 노력이 좌절되자 해인사에 은거하면서 뜻을 펴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고뇌를 담은 시로 해석할 수 있다. 가을밤이라는 계절적, 시간적 배경과 비가 내리는 상황은 이러한 화자의 고뇌를 더욱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주제]** 자신의 능력을 알아주지 않는 현실에 대한 한탄

**[작품 핵심 보기]**

• 자연물을 통한 화자의 정서 심화

가을바람, 삼경(밤), 비 → 서글프고 외로운 정서 조성 → 화자의 고독과 비애 심화

**1** (가)는 임과 이별한 화자의 슬픔을 촛불에 이입하여 나타내고 있으며, (나)는 독수공방하는 여인이 귀뚜라미 울음소리를 들으며 임에 대한 그리움과 외로움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가), (나) 모두 대상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의 정서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나, 묻고 답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 ① (가)는 촛농을 화자가 이별로 인해 흘리는 눈물로 비유하고, 촛불이 속 타는 줄 모른다고 표현하는 등 사물을 인격화하는 표현이 나타나 있다.
- ② (나)에서는 ‘꺾도리’, ‘소리’를 반복적으로 제시하면서 그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 ③ (다)는 ‘가을바람’, ‘비’와 같은 자연물을 활용하여 화자의 괴로움을 나타내고 있다.
- ⑤ (나)에서는 ‘지는 둘 새는 밤’, (다)에서는 ‘삼경’과 같은 시어를 통해 시간적 배경을 제시하여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2** ㉠은 겉으로는 눈물(촛농)을 떨어뜨리고 속으로는 타고 있는 사물로, 화자가 임과 이별한 후 느낀 슬픔을 투영시킨 대상이다. ㉡은 화자가 임과 이별한 상황에서 동병상련을 느끼는 존재로서 자신의 처지와 동일시하여 불쌍히 여기고 있는 대상이다.

**3** <보기>에는 최치원이 유학 생활을 마친 후 정치 개혁에 힘썼으나 반대에 부딪쳐 실현하지 못했음이 나타나 있다. 이러한 최치원의 삶을 통해 볼 때, 쓸쓸한 밤에 내리는 ‘비’(雨)는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화자의 고뇌와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객관적 상관물로 기능한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보기>를 통해 볼 때, (다)는 자신의 능력을 펼치지 못하는 현실에서 겪은 화자의 정서를 노래한 작품이지 임과 이별한 상황에서 겪은 화자의 정서를 노래한 작품이 아니다.
- ② <보기>를 통해 (다)의 작가가 시도했던 정치적 개혁은 실패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정치 개혁 과정에서 겪는 갈등은 관계가 없다.
- ④ (다)에서는 과거와 다른 현재의 불행에 대한 화자의 무상감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펼치지 못한 데 대한 고뇌를 그리고 있다.
- ⑤ <보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다)의 작가는 학문을 통해 뛰어난 경지를 이루려고 했기보다는 혼란스러운 정치를 개혁하는 데 힘썼음을 알 수 있다.

## 기본 동지스돌 기나긴 밤을 ~ / 훈 손에 가시를 들고 ~ / 개를 여라문이나 기 르되 ~

본문 52~53쪽

1 ① 2 ④ 3 ⑤

개념 확인 문제 1 추상, 전가, 발상 2 해석적

**개념 연계** 개념 8 **독특한 발상과 표현** : 고전 시가에서는 기발한 발상과 독특한 표현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여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도 한다. (가)~(다)에는 추상적 개념을 구체화하거나 화자의 정서를 특정 대상에 전가하는 방식과 같은 독특한 발상과 표현이 나타나 있다. 이러한 기발한 발상에 착안한 표현이 가져오는 시적 효과는 무엇이며, 화자의 정서 및 태도는 이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생각하며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 가 황진이, '동지(冬至)스돌 기나긴 밤을 ~'

[갈래] 평시조

[해제] 임을 향한 간절한 사랑을 솔직하고 담백하게 나타낸 시조이다. 임이 없어 쓸모없는 밤의 시간을 잘라다가 임과 함께하는 짧은 밤에 붙이겠다는 기발한 발상을 통해 임에 대한 애절한 기다림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주제] 임을 애타게 그리워하는 마음

[작품 핵심 보기]

• 추상적 개념의 구체적 형상화

한 허리를 버혀 내여	서리서리 너털다가	구뽀구뽀 퍼리라
가운뎃을 자를 수 있음.	이불 아래 넣을 수 있음.	여러 굵이로 펼 수 있음.



'밤'이라는 시간 개념을 구체적인 사물로 형상화함.

### 나 우탁, '훈 손에 가시를 들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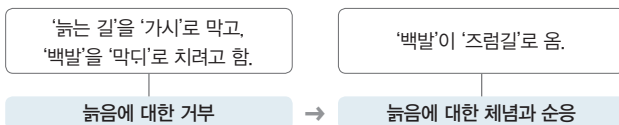
[갈래] 평시조

[해제] 늠름에 대한 체념과 순응을 해석적으로 표현한 시조이다. 자연적으로 찾아오는 늠름을 인위적으로 막아 보고 싶은 인간의 솔직한 감정이 감각적인 표현 방식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화자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결국 늠름에 가는 것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숙명임을 인정하는 달관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주제] 늠름에 대한 체념과 순응

[작품 핵심 보기]

•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



### 다 작자 미상, '개를 여라문이나 기르되 ~'

[갈래] 사설시조

[해제] 임을 기다리는 애타는 심정을 짓는 개를 통해 해석적으로 형상화한 사설시조이다. 화자는 오지 않는 임에 대한 미움을 개에게 전가시켜 개를 원망하고 있다. 개가 짖어 임이 오지 않는다는 이러한 독특한 발상을 통해 화자의 정서가 사실적이면서도 익살스럽게 표현되고 있다.

[주제] 오지 않는 임에 대한 원망

[작품 핵심 보기]

• 다른 대상에 전가된 화자의 정서

'뽀은 님'은 반겨서 맞이하고, '고은 님'은 짖어서 돌아가게 하는 '개'를 알아워하고 원망함.

오지 않는 임에 대한  
원망의 표현

1 (가)의 '서리서리', '구뽀구뽀'는 의태어로,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살린 표현이다. 화자는 임과 오랫동안 함께 있고 싶은 소망을 이러한 음성 상징어를 사용해 압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② 반어적 표현은 겉으로 드러난 내용과 속에 담긴 의미가 서로 반대되는 표현을 뜻하는데, (나)에서는 이러한 반어적 표현을 담은 시구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다)의 화자는 임이 개 때문에 오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개에 대한 원망의 정서를 '알피오라' 등에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④ (다)의 종장에서 의문형 진술을 통해 완반이 많아도 개에게는 절대 먹이지 않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으나, (가)에는 이러한 설의적 표현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⑤ (다)는 종장에서 개에게 말을 건네는 듯한 어투를 사용하고 있으나, (나)는 화자의 독백체로 진술되어 있으며 시적 대상에 대한 친밀한 태도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

2 (다)에서는 오지 않는 임을 원망하는 화자의 정서를 '개'에게 전가시켜 표현하는 발상이 나타나 있다. 역설은 진술이나 상황이 서로 논리적으로 모순될 때를 일컫는 표현 방법이므로 (다)에서는 그러한 역설적 발상이 나타난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 풀이]

① (가)의 화자는 관념적인 시간을 잘라서 임이 오는 날에 붙이겠다는 생각을 나타내고 있다.

② (가)의 화자는 임이 없는 밤은 쓸모없이 길고, 임과 함께하는 날 밤은 짧고 아쉽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다.

③ (나)의 화자는 '늠음'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 사물로 인식하여 '가시'나 '막디'로 막으려 하고 있다.

⑤ (다)의 화자는 개가 짖어 임이 오지 않는다고 임이 오지 않는 까닭을 개에게 전가하며 원망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3 (다)의 종장에서 '오더라'에는 늠름은 결코 막을 수 없다는 화자의 깨달음이 담겨 있다. 따라서 이는 절망적 상황에 대한 극복 의지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오답 풀이]

① '가시'와 '막디'는 세월이 흐르면서 찾아오는 늠름을 막기 위한 도구이다.

② 종장의 '막고', '치라터니'는 늠름과 백발을 거부하는 화자의 행동으로 해석성을 드러내고 있다.

③ '백발'이 '문저' 알아서 온다는 것에서 대상을 사람처럼 인식하는 의인화의 기법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즈럼길'은 늠름을 막으려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은 늠름이 먼저 찾아온다는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문 54~55쪽

1 ① 2 ④ 3 ⑤

**개념 연계** **개념 8** **독특한 발상과 표현** : 고전 시가에서는 작가 나름의 참신한 발상이나 독특한 표현 방식이 다양하게 나타낸다. (가)는 자연을 탈속적인 공간으로 설정하여 속세와 단절된 공간으로 인식하면서도 속세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독특한 발상을 보이고 있다. (나)는 각 장마다 전대절에서 이상적이거나 친숙한 사물들을 나열한 뒤 '경(景) 그 엇더하니잇고'로 마무리하고 후소절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독특한 구성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발상과 이를 드러내기 위해 사용된 독특한 방법에 주목하며 감상해 보도록 한다.

### 가 이현보, '어부 단가(漁父短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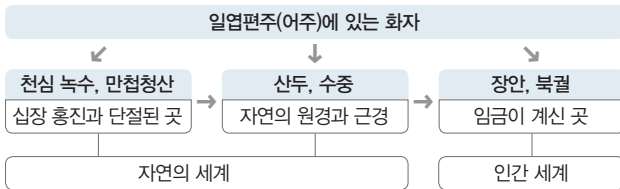
[갈래] 평시조, 연시조

[해제] 작가가 고려 때부터 전해 오던 12장의 장가와 10장의 단가를 9장의 장가와 5장의 단가로 개작하였는데, 이 중 장가 '어부가'와 구분하기 위하여 '어부 단가'라고 부르는 것이 이 작품이다. 총 5수로 되어 있는데, 1수부터 4수까지는 속세를 벗어나 자연을 벗어나 한가롭게 지내는 삶의 모습에 만족감을 드러내는 반면, 5수에서는 나라에 대한 걱정을 드러내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주제] 강호에 묻혀 사는 어부(漁父)의 한정(閑情)

[작품 핵심 보기]

• 시선의 이동에 따른 사상 전개



### 나 한림 제유, '한림별곡(翰林別曲)'

[갈래] 경기체가

[해제] 고려 고종 때 한림원의 여러 문인들이 공동으로 창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들의 문학적 자부심과 향락적인 생활, 호탕한 기상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전체 8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분장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은 1~4행의 전대절과 5~6행의 후소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대절은 화자에게 친숙한 사물을 나열한 뒤 '경(景) 그 엇더하니잇고'라는 후렴구로 마무리하는 형식을 취하고, 후소절에서는 자신들의 모습을 강조하는 표현이 담겨 있다.

[주제] 문인들의 자부심과 풍류

[작품 핵심 보기]

• '한림별곡'의 전체 짜임

장	제재	내용
1	시부(詩賦)	문인들의 명문장 예찬
2	서적(書籍)	학문과 독서에 대한 자긍심
3	명필(名筆)	유명 서체와 명필 예찬
4	명주(名酒)	상류 계층의 주흥 예찬
5	화훼(花卉)	화원의 경치 예찬
6	음악(音樂)	음악 연주의 흥취 예찬
7	누각(樓閣)	후원의 경치 감상
8	추천(鞦韆)	그네 뛰는 정경과 풍류 생활 예찬

1 (가)는 '날 가는 주를 알라', '니즌 스치 이시라', '제세현이 업스랴'와 같은 설의적 표현을 통해 어부 생활의 즐거움과 나라를 걱정하는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나)는 '엇더하니잇고', '멧 부니잇고'와 같은 설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학문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 ② '십장 홍진(什長紅塵)'과 '월백(月白)'이나 '청하(靑荷)'와 '녹류(綠柳)'에 색채 이미지가 활용되어 있으나, (나)에는 색채와 관련된 시어가 나타나 있지 않다.
- ③ (가)는 '일반 청의미(一般淸意味)'에 중국 송나라 소옹의 시인 '청야음(淸夜吟)'을 인용하고 있으나, 고사를 인용하여 자연을 예찬하고 있지는 않다. (나)는 한자어를 많이 사용하여 문인들의 명문장과 금학사의 제자들 등을 찬양하고 있으나, 고사를 인용하여 대상을 예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④ (가)는 자연과 속세를 대비하고 있으나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고 있지는 않다. (나)도 사물들을 나열했을 뿐,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고 있지 않다.
- ⑤ (가)는 시선의 이동에 따라 사상을 전개하고 있으나, (나)는 사물들을 나열해 사상을 전개하고 있을 뿐, 시선의 이동은 나타나 있지 않다.

2 [A]와 <보기> 모두 시각적 이미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으나, 청각적 이미지는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 ① [A]에는 계절적 배경이 나타나 있지 않으나, <보기>에서는 '춘만(春晚)'에 봄이라는 계절적 배경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 ② <보기>에서 화자는 아름다운 경치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하므로 속세를 부정적 공간으로 표현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A]의 '십장 홍진(十丈紅塵)'은 열 길이나 되는 붉은 먼지라는 뜻으로 번거롭고 속된 세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서 화자가 속세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A]에서는 '천심 녹수(千尋綠水)'와 '만첩청산(萬疊靑山)'으로 인해 속세와 단절되어 있음을 표현하였고, <보기>에서 '벽파(碧波)'에 꽃을 띄워 야외(野外)에 보내노라'는 푸른 시냇물에 꽃을 띄워 바깥 들판(속세)으로 보낸다는 의미로 자연과 속세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A]의 화자는 자연에서 유유자적하며 욕심 없이 살아가는 어부의 생활을 노래하고 있고, <보기>의 화자는 고산의 아름다운 경치와 학문 수양의 즐거움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한다.

— 보기 | 작품 분석 —

이이, '고산구곡가(高山九曲歌)'

[갈래] 연시조(전 10수)

[해제] 작가가 황해도 해주에서 후진 양성을 할 때 수양산의 아름다운 경치와 학문에 정진하는 생활을 노래한 작품이다. 서곡은 아름다운 자연을 벗하며 성리학을 공부하겠다는 결의가 제시된 부분으로 고산구곡가를 지은 동기가 나타나 있다. 그리고 9수는 '관암, 화암, 취병, 송애, 은병, 조협, 풍암, 금탄, 문산'의 경치를 두고 각각 한 수씩 그 흥취를 읊으면서 학문에 정진하는 생활의 정취를 드러내고 있다.

[주제] 고산의 아름다운 경치 예찬과 학문 수양의 즐거움

3 '대평광기(太平廣記) 스빅여 권(四百餘卷)'을 반복하여 제시한 것에는 많은 서적을 읽는 사대부들의 독서량을 과시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나)에서 문인들의 학문적 어려움을 나타낸 부분은 찾을 수 없다.

## 기본 어부사시사

본문 56~57쪽

1 ③ 2 ① 3 ②

개념 확인 문제 1 계절 2 출항, 귀항

**개념 연계** 개념 9 시간·공간·시선의 이동 : 고전 시가, 특히 자연 풍경과 그 속에서의 풍류적인 삶을 다룬 연시조에서는 주로 시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는 경우가 많다. 각 연이 유기적으로 구성된 연시조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의 변화를 담아내기에는 적합하다. '어부사시사'는 사계절의 변화에 따른 어촌의 풍경과 어부의 생활을 노래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어부의 삶이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각 수에 드러난 계절감을 주는 시어와 어부의 일과에 유의하며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 윤선도,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

[갈래] 평시조, 연시조

[해제] 사계절에 따라 펼쳐지는 어촌의 아름다운 정경과 어부 생활의 흥취와 풍류를 각 계절마다 10수씩, 총 40수로 노래한 연시조이다. 여기서 '어부'는 생계를 위해 고기를 잡는 '어부(漁夫)'가 아니라, 자연과 더불어 즐기면서 취미로 고기를 잡는 풍류객으로서의 '어부(漁父)'이다. 어부 생활을 하면서 자연과 더불어 풍류를 즐기는 화자의 유희자적인 삶을 다양한 시적 기교를 살려 표현하고 있다.

[주제] 계절에 따른 어촌의 아름다움과 어부 생활의 흥취

[작품 핵심 보기]

•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

춘사 3(봄)	'돌 두라라' - 배를 타고 바다로 나아가는 즐거움
↓	
하사 3(여름)	'돌 두라라' - 시원한 바람에 배를 내맡기고 유희자적인 생활
↓	
추사 1(가을)	'비 떠라' - 어부의 삶에 대한 긍지와 가을 강의 흥취
↓	
동사 8(겨울)	'비 미여라' - 속세를 멀리한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

1 이 작품은 '〈춘사〉 → 〈하사〉 → 〈추사〉 → 〈동사〉'로, 봄부터 겨울에 이르는 계절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먼 곳(원경)에서 가까운 곳(근경)으로 시선을 이동시켜 시상을 전개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 ① 이 작품은 어촌의 아름다운 정경과 어부 생활의 흥취를 각 계절마다 10수씩 노래한 연시조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이르는 시간적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 ② 자연을 뜻하는 '외', '북포(北浦) 남강(南江)', '물' 등이 속세를 의미하는 '세상(世上)', '딘훤(塵喧)과 대비되면서 자연을 벗 삼아 살아가는 화자의 즐거운 삶을 부각하고 있다.
- ④ '돌 두라라', '비 떠라', '비 미여라'와 같은 여음구는 초장과 중장 사이에 위치하며 반복되고 있고, '지국충(至菊兪) 지국충(至菊兪) 어스외(於思外)'와 같은 여음구는 중장과 중장 사이에 위치하며 매 수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여음구는 작

품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시적 안정감을 주고, 운율감을 살려 흥취를 돋우는 역할을 한다.

⑤ '돌 두라라'는 배가 바람을 받아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고, '비 떠라'는 배가 출발하기 위해 배를 바다에 띄우는 것이며, '비 미여라'는 배가 부두에 도착하여 밭줄 등으로 고정시키는 것이다. 즉, 초장과 중장 사이의 여음구는 배의 출항부터 귀항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화자는 [A]에서 봄바람을 맞으며 배를 타고 나아가는 즐거움을 느끼고 있으며, [B]에서는 시원한 여름 바람을 배 위에서 맞으며 유희자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답 풀이]

② [B]와 [C]에서는 각각 여름과 가을에 자연에서 느끼는 어부의 흥취를 노래하고 있을 뿐, 어부 생활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또한 [C]에서는 '물외(物外)'로 상징되는 탈속의 공간에 대한 만족감이 나타나 있으나, [B]에서는 이러한 탈속적 세계관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③ [A]에서는 중장과 중장에서 유사한 문장 구조가 짝을 이루는 대구가 드러나나, [C]에서는 대구되는 시구가 나타나 있지 않다. 또한 [A]에서는 이러한 대구를 통해 자연의 모습만 드러내고 있으므로 대구의 표현을 통해 속세와 자연의 속성을 대조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④ [C]에서 화자는 '어옹(漁翁)'을 비롯한 사람들을 지적하며 어부 생활의 긍지를 나타내고 있을 뿐, 자신의 지난 삶을 돌이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⑤ [A]~[D]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각 계절마다 느낄 수 있는 자연에서의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을 뿐, 그 즐거움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3 '식식호고'(㉠)는 자연을 벗하며 살아가는 화자 자신을 외로운 소나무에 비유하여 '씩씩하게' 서 있다고 함으로써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낸 표현이다. 그리고 〈보기〉의 '무심(無心)호애라'는 자연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아무런 욕심이 없다는 화자의 탈속과 무욕의 세계관을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과 〈보기〉의 '무심(無心)호애라' 모두 자연에 대한 흥겨움을 드러낸 것으로 보기 어렵다.

[오답 풀이]

- ① '물' ㉠(㉠)와 '강호(江湖)'는 자연의 공간으로, 속세에서 벗어난 탈속의 공간이다.
- ③ '머흔 구름' ㉡(㉡)과 '천심 녹수(千尋綠水)'는 속세를 가려 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자연을 벗 삼아 살아가려는 화자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대상이다.
- ④ '그리온다' ㉢(㉢)의 객체는 '세상(世上)'이고 〈보기〉에서 '그렸는고'의 객체는 '십장 홍진(十丈紅塵)'이다. 곧 둘 다 세상이나 속세를 객체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 ⑤ '딘훤(塵喧)' ㉣(㉣)은 속세의 시끄러운 소리를 뜻하는 것이고, '십장 홍진(十丈紅塵)'은 '열 길이나 되는 붉은 먼지'라는 뜻으로 역시 속세를 비유하고 있는 표현이다.

- 보기 | 작품 분석

이현보, '어부 단가(漁父短歌)'

[갈래] 평시조, 연시조

[해제] 자연을 벗하며 고기잡이를 하는 어부의 생활을 그린 연시조이다. 상투적인 한자어를 사용하여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자연의 정경을 묘사하고 있다. 강호가도의 맥을 이으며 이후 윤선도의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에도 영향을 미쳤다.

[주제] 강호에 묻혀 사는 어부의 풍류와 한가로움



## 심화 상춘곡

본문 58~59쪽

1 ② 2 ④ 3 ③

**개념 연계** **개념 9 시간·공간·시선의 이동** : 고전 시가, 특히 자연의 아름다운 경치를 묘사하는 작품에서는 주로 공간의 이동이나 시선의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 방식을 바탕으로 대상을 구체적으로 나타낸다. '상춘곡'은 공간과 시선의 이동에 따라 자연의 아름다움과 봄의 흥취를 노래하고 있다. 시상 전개 과정에서 자연 경관과 이에 대한 화자의 정서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를 공간과 시선의 구체적인 변화에 주목하며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 정극인, '상춘곡(賞春曲)'

[갈래] 서정 가사, 양반 가사

[해제] 이 작품은 부귀와 공명을 버리고 자연에 묻혀 살면서 안빈낙도하는 삶의 즐거움을 노래한 가사이다. 봄의 정경에 대한 섬세한 묘사와 자연과 화자가 동화되는 물아일체의 경지가 잘 나타나 있다. 특히 좁은 공간에서 넓은 공간으로의 이동을 통해 화자가 속세에서 점차 탈속의 세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주제] 봄의 흥취와 안빈낙도

[작품 핵심 보기]

• 공간의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

수간모옥	자연의 주인이 된 듯한 즐거움을 느낌.
↓	
정자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한가로움을 느낌.
↓	
들판, 시냇가	술을 마시며 봄의 흥취에 젖음.
↓	
봉두	산 아래를 내려다보며 봄 경치를 감상함.

• 속세와 자연의 대비

속세	자연
흥진, 공명, 부귀, 헛된 생각	산림, 송죽, 산수, 연하일휘, 청풍명월, 단표누항
↓	↓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삶	소박하고 자연 친화적인 삶

1 화자는 '수간모옥(數間茅屋)'의 좁은 공간에서 출발하여 마지막에는 '봉두(峯頭)', 즉 '산봉우리'에 올라 '천촌만락(千村萬落)'을 바라보고 있다. 따라서 시상이 전개되면서 공간이 점차 확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ㄱ). 또한 화자는 '송죽(松竹)', '도화(桃花) 행화(杏花)', '새', '천촌만락(千村萬落)', '연하일휘(煙霞日輝)' 등과 같은 사물이나 자연 경관을 중심으로 시선을 이동하고 있다(ㄴ).

**오답 풀이**

ㄴ. '수간모옥', '정자'와 '들판, 시냇가', '산봉우리'는 모두 아름다운 봄의 경치를 볼 수 있는 곳일 뿐, 그 의미가 서로 대립적이지는 않다.

ㄷ. '수간모옥'에서 '산봉우리'에 이르는 동안 화자는 봄의 아름다운 정경을 묘사하는 동시에, 이를 예찬하고 자연에 묻혀 사는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화자의 내면세계와 외부 정경이 대비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공명(功名)도 날 꺼리고 부귀(富貴)도 날 꺼리니'는 화자가 공명과 부귀를 꺼리는 것을 반대로 표현한 것으로, 속세의 가치를 버리고 자연을 벗 삼아 안빈낙도하겠다는 화자의 삶의 태도가 담겨 있다. 따라서 속세와 단절된 삶을 살게 된 직접적인 계기를 밝히고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화자는 자연과 더불어 살면서도 이웃들에게 산수 구경을 권유하기도 하므로, 속세와 완전히 단절된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화자는 봄의 정경을 묘사하며 그런 자연을 만든 조물주의 솜씨가 굉장하다고 표현함으로써 아름다운 봄 경치에 대한 감탄을 드러내고 있다.
- ② 화자와 '물아일체(物我一體)'를 이루는 대상은 봄의 흥취를 못 이기어 우는 '새'이다.
- ③ 화자는 먹은 술의 잔 수를 '꽃나무 가지'를 꺾어 표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자연 속 풍류 생활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 ⑤ '단표누항(簞瓢陋巷)'은 소박하고 청빈한 생활을 뜻하는 것으로, 안빈낙도의 삶을 살겠다는 화자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식 더하기

#### 정철의 '장진주사(將進酒辭)'

한 잔 먹세그려 또 한 잔 먹세그려 꽃 꺾어 수(數) 놓고 무진 무진 먹세그려.  
이 몸 죽은 후면 지게 위에 거적 덮어 졸라매 메고 가나 오색실 화려한 휘장에 만인이 울며 가나 억새풀 속새풀 띄갈나무 백양 속에 가기만 하면 누런 해 흰 달 가는 비 굵은 눈 회오리바람 불 제 뉘 한 잔 먹자 할고.  
하물며 무덤 위에 원숭이 휘파람 불 때야 뉘우친들 어찌 하리.

이 작품은 조선 선조 때 정철이 지은 사실시조이다. 술을 즐기는 화자가 술을 권하는 권주가(勸酒歌)로 풍류적이며 향락적 성격이 강하며 술로 인생 무상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3 ㉠은 진달래꽃을 부여 들고 소나무들 사이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화자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을 뿐, 상징적 의미를 담은 시어를 통해 주제 의식을 함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풀이**

- ① ㉠은 '새'가 봄의 기운을 못 이겨 '수풀'에 운다고 표현하였다. 즉, 자연물의 의인화를 통해 화자가 느낀 봄의 흥취를 대상에 이입하여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② ㉡에서는 '청향(淸香)'과 '낙홍(落紅)', '잔'과 '웃', '배고'와 '진다'가 서로 짝을 이루는 대구법을 활용하여 춘흥에 도취된 경지를 나타내고 있다.
- ④ ㉢은 '~듯이'를 활용하여 '안개, 노을, 빛나는 햇살(연하일휘)'을 '수놓은 비단(금수)'에 비유한 직유법을 사용하고 있다.
- ⑤ ㉣에서 '~어떤 벼이 있사옵고?'는 '~어떤 벼이 있었는가'라는 뜻으로 자연만이 벼이라는 의미이다. 이는 자연 속의 삶에 대한 화자의 만족감을 설의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지식 더하기

#### '상춘곡'과 다른 가사의 차이점

'상춘곡'과 같이 자연에 묻혀 유희자적인 삶을 추구하는 가사 작품들에는 대부분 연군지정(戀君之情)의 내용이 담겨 있다. 조선 전기의 가사는 양반 사대부들에 의해 주도되었기 때문에 자연을 노래한 서정적인 내용이라 하더라도 유교 이념을 바탕으로 임금을 그리워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상춘곡'에는 군은(君恩)에 감사한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다. 이는 이 작품이 작가가 벼슬살이를 다한 후에 창작되어 작가가 다시 관리로 등용될 일이 없고 관직에 대한 욕심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기본 보리타작

본문 60~61쪽

1 ③ 2 ③ 3 ⑤

개념 확인 문제 1 노동, 건강 2 낙원

**개념 연계** 개념 10 **기승전결과 선경 후정** : 한시에서는 기승전결과 선경 후정이라는 시상 전개 방식이 자주 사용된다. '보리타작'은 보리타작을 하는 농민들의 모습을 선경 후정의 방식으로 노래하고 있다. '선경'에 해당하는 정경과 '후정'에 나타나는 화자의 정서 및 태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주목하며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 정약용, '보리타작(打麥行)'

[갈래] 한시(행(行))

[해제] 이 작품은 노동을 하면서 삶의 보람과 즐거움을 찾는 농민들의 모습을 통해 관직에 얽매어 헛된 명분을 좇으며 살아온 화자가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있는 한시로, 조선 후기 민중들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육체와 정신이 조화로운 농민들의 노동이야말로 건강한 삶의 표상임을 드러내고 있는데, 새롭고 가치 있는 삶의 방식을 평범한 민중들의 삶에서 찾고자 했던 작가의 진보적인 세계관을 발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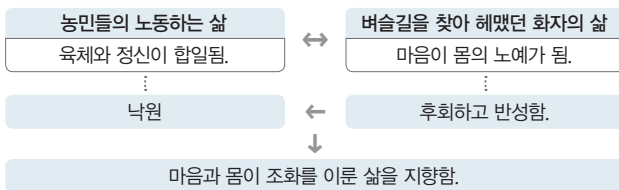
[주제] 농민들의 건강한 노동을 통해 얻은 깨달음

[작품 핵심 보기]

• 선경 후정의 시상 전개

기(1~4구)	노동하는 농민들의 건강한 삶의 모습	선경
승(5~8구)	보리타작하는 마당의 흥겨운 정경	(先景)
전(9~10구)	정신과 육체가 조화된 삶의 즐거움	후정
결(11~12구)	관직에 얽매었던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	(後情)

• 시적 대상을 통한 화자의 삶에 대한 성찰



1 화자는 [A]와 [B]에서 보리타작을 하는 농민들의 건강한 모습과 흥겨운 정경을 관찰하고, 이를 토대로 [C]와 [D]에서 정신과 육체가 조화를 이룬 삶의 기쁨을 깨닫고 관직에 얽매었던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A], [B]는 농민들의 노동의 정경이고 [C], [D]는 화자의 깨달음과 성찰에 관한 내용이므로 서로 대조적인 삶을 나타낸다고 볼 수 없다.
- ② [A], [B]에서 노동의 흥겨움으로 감정이 고조되기는 하지만 [C], [D]에서는 화자가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있으므로, 시상이 전개될수록 감정이 고조되는 양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 ④ [A], [B]에서 화자는 시적 대상인 농민들의 삶을 예찬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

로 [C]에서 삶에 대한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농민들의 삶을 비판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⑤ [A], [B], [C]에서 화자는 농민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므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며, [D]에서는 화자가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있으므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삶의 자세를 보여 주고 있다고 하기 어렵다.

2 이 작품에서는 보리타작을 하며 흥겹게 일하는 농민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으므로 고달픈 삶 속에서도 이를 즐기는 농민들의 낙천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다. 그러나 <보기>에서는 관리들의 횡포로 수탈을 당하는 농민들의 고달픈 삶을 보여 주고 있을 뿐 농민들의 낙천적인 태도에 주목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 ① 이 작품은 보리타작하는 농민의 삶을, <보기>는 새로 짠 무명베를 관리에게 빼앗기는 농민의 삶을 형상화하고 있으므로 두 작품 모두 농촌의 현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② 이 작품은 보리 낱알이 마당에 가득한 가운데 노랫가락이 점점 높아지는 데서, <보기>는 새로 짜낸 무명베가 눈처럼 새하얗다고 감탄하는 데서 노동의 결과에 만족하는 농민들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 ④ 이 작품의 화자는 농민들의 건강한 삶을 예찬하고 있고, <보기>의 화자는 관리들의 횡포를 고발하므로 수탈을 당하는 농민들의 고달픈 삶에 공감하고 안타까워한다고 볼 수 있다.
- ⑤ 이 작품의 화자는 농민들의 건강한 삶을 보고 벼슬에 집착했던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있으며, <보기>의 화자는 새로 짠 무명베를 빼앗고 세금을 독촉하는 관리들의 횡포를 고발하며 그들을 비판하고 있다.

- 보기 | 작품 분석

정약용, '탐진촌요(耽津村謠)'

[갈래] 한시(7언 절구)

[해제] 이 작품은 정약용이 전라남도 강진(강진의 옛이름이 탐진임.)에서 귀양살이를 하던 중에 그곳 농민들의 생활고를 그린 한시이다. 탐진촌의 정경과 농민들의 생활상을 사실적으로 그려 내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현실 고발적 성격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탐진농가(耽津農家)', '탐진어가(耽津漁家)'와 함께 3부작을 이루고 있다. '탐진촌요'는 모두 15수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기>의 작품은 그중 일곱 번째 작품이다.

[주제] 지방 관리들의 횡포와 농민들의 어려운 삶

3 ㉠은 마음과 몸이 조화를 이룬 농민들을 보면서 화자가 그동안 벼슬에 얽매었던 자신의 삶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현재의 삶에 대해 만족감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

[오답 풀이]

- ① ㉠에서는 '막걸리'라는 일상적인 시어를 '젓빛'에 비유함으로써 사실감을 높이고 있다.
- ② ㉡에서는 노동을 하느라 햇볕에 그을린 어깨를 시각적 이미지로 나타내어 농민들의 건강한 삶을 표현하고 있다.
- ③ ㉢에서는 서로 발을 맞추어 보리타작을 하는 노동의 장면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그림으로써 현장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 ④ ㉤에서는 마음과 몸, 즉 정신과 육체가 합일된 경지에 이른 농민들의 모습에 대한 화자의 깨달음을 나타내고 있다.

본문 62~63쪽

1 ③ 2 ④ 3 ②

**개념 연계** 개념 10 기승전결과 선정 후정 : 한시에서는 내용상 네 개의 부분으로 구분되는 작품은 대개 기승전결의 사상 전개 방식을 지닌다. (가)와 (나)는 기승전결의 방식으로 각각 인간사의 무상함과 임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다. 사상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시적 전환이 나타나는 부분이 어디인지 주목하며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 가 이색, '부벽루(浮碧樓)'

[갈래] 한시(5언 율시)

[해제] 이 작품은 고려 말기의 문인이었던 작가 이색이 고구려의 유적지인 평양성을 지나면서 영화롭던 옛 왕조를 회상하고 있는 한시이다. 화자는 부벽루에 올라, 과거에 찬란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텅 빈 성만 남아 있는 것을 바라보며 자연의 영원함과 대비되는 인간 역사의 유한함을 깨닫고 권력과 인생의 덧없음을 쓸쓸해하고 있다.

[주제] 인간사의 무상함과 고려 국운 회복에 대한 소망

[작품 핵심 보기]

• 자연과 인간사의 대비

변함없는 자연	↔	유한한 인간의 역사
달, 구름, 산, 강		텅 빈 성, 돌아오지 않는 기린마와 천손

### 나 이옥봉, '자술(自述)'

[갈래] 한시(7언 절구)

[해제] 이 작품은 조선 중기의 여류 시인인 이옥봉의 한시로, 오지 않는 임에 대한 그리움의 마음이 절절하게 드러나 있다. 화자는 임에 대한 그리움을 달에게 하소연하면서, 자신의 애타는 마음을 '꿈속의 낮'을 활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꿈속의 발자취가 현실화된다면 문 앞의 돌길은 모래가 되었을 것이라는 다소 과장된 표현을 통해서 임을 만나고 싶어 하는 여인의 간절한 마음을 부각하고 있다.

[주제]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작품 핵심 보기]

• 과장을 통한 화자의 정서 표현

'꿈속의 낮'이 자취를 남긴다는 상황을 가정하여, 문 앞의 돌길이 모래가 되었을 것이라고 과장하여 표현함.	→	임을 그리는 화자의 애절한 마음을 부각함.
---	---	-------------------------

1 (가)와 (나)는 모두 한시의 전형적인 사상 전개 방식인 기승전결에 따라 4단으로 구성되어 있다(ㄱ). 한편 (가)는 텅 비어 있는 '성'으로 상징되는 인간사의 유한함과 늘 변함없는 '산', '강'으로 상징되는 자연의 영원함을 대비하며 사상을 전개하고 있다(ㄴ). 그리고 (나)는 시의 첫 구에서 임에게 안부를 묻는 형식으로 말을 건네면서 사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ㄷ).

**오답 풀이**

ㄴ. (가)는 앞 4구에서 부벽루에 올라 바라본 정경을 묘사하고, 뒤 4구에서는 이를 통해 느낀 감상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선정 후정의 사상 전개 방식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나)는 기구와 승구에서 임의 안부를 묻고 자신의 한을 노래하고 있

으며 전구와 결구에서는 임을 기다리는 애타는 심정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선정 후정의 방식으로 사상이 전개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ㄷ. (가)에서는 한때 찬란했던 왕조인 옛 고구려의 성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화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나,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지는 시간의 흐름이 나타나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에서도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지는 시간의 흐름이 나타나 있지 않다.

2 '기린마'와 '천손'은 신이한 능력을 지닌 영웅인 동명왕을 뜻한다. 화자는 고구려의 시조인 동명왕을 회상하며, 그와 같은 영웅이 다시 나타나 쇠락해 가는 나라를 바로잡기를 바라고 있을 뿐, 현실에서 훌륭한 인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비판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 ① '영명사'와 '부벽루'는 평양성에 있는 사찰과 누각으로 화자의 여정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찬란했던 옛 왕조의 모습과 달리 현재 텅 비어 있는 '성'은 쇠락한 왕조의 쓸쓸한 모습을 보여 주며, 그 위에 뜬 한 조각의 '달'은 그러한 적막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 ③ '물'은 늙고 '구름'은 천 년이 흘렀을 정도로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통해 덧없는 세월의 흐름과 인간사의 무상함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 ⑤ 언제나 푸른 '산'과 저대로 늘 흐르고 있는 '강'은 유한한 인간사와 대조적인 자연의 영원성을 보여 주고 있다.

3 (나)의 화자는 현실에서는 만날 수 없는 임에게 가기 위해 '꿈' ㉠이라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으며, <보기>의 화자는 임을 '꿈' ㉡에서라도 보기 위해 잠을 청하고 있다. 따라서 ㉠과 ㉡ 모두 임을 만나고 싶은 화자의 애타는 심정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나)와 <보기>에서 화자는 꿈속에서 임을 만난 것이 아니라 꿈을 통해 임을 만나고 싶은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과 ㉡는 화자가 자신의 소망을 이루고자 하는 공간이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소망이 실현된 공간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 ③ ㉠과 ㉡는 모두 실제의 공간이 아니며 (나)와 <보기> 모두 화자와 임이 재회할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
- ④ (가)의 화자는 ㉠에서 임을 만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임과 화자가 만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 ⑤ ㉡는 임을 만나는 상황을 가정하여 만들어진 공간이 아니라, 현실에서 보지 못하는 임을 꿈에서라도 보고 싶은 화자의 간절한 그리움의 심정이 반영된 공간이다.

보기 | 작품 분석

정철, '사미인곡(思美人曲)'

[갈래] 서정 가사, 양반 가사

[해제] 이 작품은 임금을 '임'으로 비유하여 임금에 대한 그리움과 변함없는 사랑을 노래한 조선 전기의 가사이다. 계절의 변화에 따라 사상을 전개하고 있으며, 화자를 여성으로 설정하여 임에 대한 애절한 정서와 주제 의식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주제] 임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

## 기본 추강에 밤이 드니~ / 강산 조흔 경을~ / 두류산 양단수를~

본문 64~65쪽

1 ① 2 ① 3 ⑤

개념 확인 문제 1 욕심, 만족감 2 무릉도원

**개념 연계** 개념 11 **자연 친화와 안빈낙도** : 고전 시가 중에는 사대부가 벼슬을 포기하고 자연에 묻혀 살아가며 강호가도(江湖歌道)를 노래하는 작품이 많았다. (가)~(다)는 모두 자연 친화적인 삶의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는데, 자연을 바라보는 화자의 태도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 작품에 나타나는 자연의 모습과 이를 대하는 화자의 태도에 주목하며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 가 월산 대군, '추강(秋江)에 밤이 드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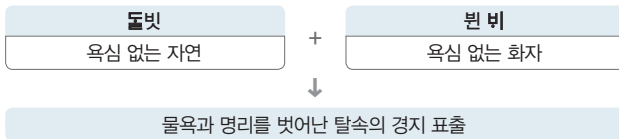
[갈래] 평시조

[해제] 이 작품은 물욕(物慾)과名利(名利)를 벗어나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가을 달밤에 낚시질로 풍류를 즐기는 한가로운 삶을 노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강호 한정가이다.

[주제] 가을 달밤의 풍류와 정취

[작품 핵심 보기]

• 화자의 태도 표현 방식



### 나 김천택, '강산(江山) 조흔 경(景)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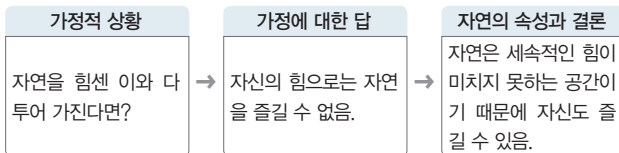
[갈래] 평시조

[해제] 이 작품은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면서 그 속에서 유유자적하는 삶에 대한 만족감을 노래하고 있다. 자연이 세속적인 힘이 미치지 않는 공간임을 강조하며 자연 속에서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자연을 즐기는 삶

[작품 핵심 보기]

• 가정적 상황 설정을 통한 주제 표출



### 다 소식, '두류산(頭流山) 양단수(兩端水)를~'

[갈래] 평시조

[해제] 이 작품은 두류산 양단수의 아름다움을 무릉도원에 비유하여 예찬하면서 자연 속에 귀의하며 사는 삶의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다. 문답법을 통해 아름다운 자연에 대한 감흥을 부각하고 있다.

[주제] 두류산 양단수의 경치 예찬과 자연 속에 은거하는 즐거움

[작품 핵심 보기]

• '두류산 양단수'의 선경

두류산 양단수	도화 (매개체)	무릉도원
화자가 머무는 곳		이상향,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

1 (가)는 가을밤에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는 화자의 모습을 통해 세속적인 욕심에서 벗어난 강호 한정의 삶을 보여 주고 있으며, (나)는 권력도 부귀도 없는 화자가 아름다운 자연을 마음껏 즐기는 삶을 노래하고 있다. (다)는 두류산의 양단수 경치를 예찬하면서 동시에 이러한 자연에 은거하는 삶의 즐거움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가)~(다)의 공통점은 자연에 묻혀 살아가는 삶의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답 풀이]

② (나)에서 권력과 권세를 가지기 위해 다투는 사회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가)~(다)에서 자연은 모두 부정적인 현실과 대조되는 공간일 뿐 자연에 빚대어 부정적인 현실을 비판하고 있지는 않다.

③ (가)~(다) 모두 자연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있지만, 계절의 변화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지는 않다.

④ (가)~(다)에서 자연과 속세의 대비는 간접적으로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속세에 대한 미련을 드러낸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⑤ (가)~(다) 모두 유교적 삶의 필요성을 드러낸 부분은 찾을 수 없다.

2 (가)에서 낚시대를 드리우나 고기가 물지 않는 것은 종장의 빈 배와 연결되어 화자의 무욕(無欲)의 상태를 드러낸다. 따라서 이는 세속에 대한 욕심 없이 가을밤의 정취를 유유자적하며 즐기는 화자의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속세에서功名(功名)을 실현하지 못한 화자의 상황을 드러낸다고는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② '무심(無心)한 돌빔'은 욕심 없는 자연을 의미한다. 이는 욕심 없는 화자의 마음을 상징하는 '빈 빗'과 연결되어 물욕과 명리에서 벗어난 탈속의 경지를 나타낸다.

③ '빈 빗 저어 오노미라'는 고기 대신 달빛을 싣고 돌아오는 풍류를 드러내며 세속적 욕망에서 벗어난 화자의 태도를 보여 준다.

④ 사회적·경제적으로 권력자인 '힘센' 이는 권력도 부귀도 없는 존재인 '나'와 대조되며 세속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존재를 의미한다.

⑤ 화자는 자연이 세속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공간이기에 권력도 부귀도 없는 존재인 자신도 자연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것에 흡족해하고 있다.

3 (다)와 <보기>는 모두 자연을 이상적인 공간으로 그리고 자연에서의 즐거움을 드러내고 있을 뿐, 자연의 즐거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 특히 <보기>의 화자는 어부가 '도화(桃花)'를 보고 그 공간을 알까 걱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알지 못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다)와 <보기>의 화자는 모두 아름다운 자연의 경치를 예찬하며 그 속에서 느낀 감흥을 표출하고 있다.

② (다)와 <보기>의 화자는 모두 복숭아꽃을 보며 무릉도원을 연상하고 있다.

- ③ <다>에서는 '아희야, 무릉(武陵)이 어디오, 나는 엔가 후노라'에서 문답법이 사용되었으나 <보기>에는 문답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 ④ <보기>에서는 '백구(白鷗)'와 '도화(桃花)'를 의인화하여 표현하고 있으나 <다>에는 의인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보기 | 작품 분석

이항, '청량산(淸凉山) 육륙봉(六六峰)을 ~'

[갈래] 평시조

[해제] 이 작품은 아름다운 자연에 묻혀 한가롭게 살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이 담긴 시조이다. 청량산을 탈속적 이상향인 무릉도원과 연결시킴으로써 청량산의 아름다움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주제] 청량산의 아름다움 예찬

## 심화 누항사

본문 66~67쪽

1 ③ 2 ⑤ 3 ④

**개념 연계** **개념 11 자연 친화와 안빈낙도** : 강호가도(江湖歌道)를 노래한 고전 시가 중에는 자연 속에서 살아가며 안빈낙도를 지향하는 모습이나 자연의 삶에 만족하면서도 현실적 문제로 갈등하는 모습이 나타난 작품도 있었다. '누항사'는 궁핍한 현실 속에서 안빈낙도하고자 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있는 작품이다. 화자가 처한 삶의 모습과 그에 대응하는 화자의 태도, 그리고 조선 전기 가사와의 차이점에 주목하며 감상해 보도록 한다.

### 박인로, '누항사(陋巷詞)'

[갈래] 은일 가사

[해제] 이 작품은 궁핍한 현실 속에서 고통스럽게 살고 있지만 안빈낙도하며 사대부가 지녀야 할 유교적 덕목을 추구하고자 하는 화자의 가치관이 잘 드러난 가사이다. 조선 전기 가사의 서정적이고 관념적인 성격이 조선 후기에 좀 더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경향으로 변화해 간 과정을 잘 보여 준 작품이다.

[주제] 선비의 곤궁한 삶과 빈이 무원(貧而無怨)의 자세

[작품 핵심 보기]

• 현실에 대한 화자의 태도

현실	→	화자의 태도
궁핍한 생활 속에서 자연을 벗 삼아 살겠다는 꿈을 잊었음.		빈이 무원(貧而無怨)한 삶의 자세를 다짐함.

• '누항사'의 전체 구성

서사	극빈한 가운데 안빈낙도를 다짐하며 살아감.
본사	- 농사를 짓고자 하나 소가 없어서 이웃에게 소를 빌려다 감. - 소를 빌려다 갔다가 수모를 당하고 돌아와 발 갈기를 포기함. - 강호에 살고자 하는 꿈을 되새김.
결사	궁핍한 현실 속에서 안빈낙도를 결심함.

**1** 욕심이 없는 화자는 '무심(無心)한 백구(白鷗)'에 자신의 감정을 이입하여 자연과의 물아일체(物我一體)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사는 대체로 4음보 율격을 갖추는데 이 작품 역시 4음보 율격을 통해 리듬

감을 형성하고 있다.

② 이 작품에는 속뜻과 반대되는 진술인 반어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④ 이 작품의 앞부분 중 화자가 이웃에게 소를 빌리는 부분에서 대화를 직접 인용하고 있기는 하나, 제시된 부분에는 대화 형식을 활용하고 있지 않다.

⑤ 이 작품에서는 풍자적 어조와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도 드러나지 않는다.

**2** 화자는 궁핍한 현실에서의 고통과 안빈낙도라는 이상 사이에서 갈등하다 빈이 무원하는 안분지족(安分知足)의 태도로 살아가고자 한다. 비록 자연에 묻혀 살고 있으나 충(忠)과 효(孝)의 유교적 윤리를 지키며 안빈낙도하는 삶을 지향하고자 한 것이지, 화자가 관직에 나아갈 준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강호(江湖) 한 꿈'은 자연에 묻혀 살고자 하는 소망으로 <보기>를 참고하면 사대부의 자연 친화적인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② '님지 업스 풍월강산(風月江山)에 절로절로 늘그리라'는 가난한 생활 속에서도 자연에서 유유자적하며 자연을 즐기겠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안빈낙도하며 살아가겠다는 작가의 의지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니 빈천(貧賤)'은 가난한 화자의 모습, 즉 작가 자신의 생활상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임진왜란 이후 경제적으로 몰락한 사대부의 궁핍한 삶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

④ '단사표음(簞食瓢飲)을 이도 족(足)히 너기로라'는 소박한 생활을 추구하는 작가의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경제적으로는 몰락하였으나 안분지족하는 사대부의 모습이라 볼 수 있다.

**3** 이 작품과 <보기>에는 자연에 묻혀 살아가고자 하는 화자의 마음이 드러나 있으나, 이 작품과 달리 <보기>는 임금을 섬기고자 하는 유교적 윤리로 인해 자연(강호)과 속세(임금)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있으므로 속세에 대한 미련이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의 화자는 궁핍한 현실과 안빈낙도라는 이상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이지, 속세와 자연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이 작품의 '풍월강산(風月江山)에 절로절로 늘그리라'와 <보기>의 '임천(林泉)이 좋으니라'에서 자연을 즐기고 싶어 하는 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이 작품의 '태평천하(太平天下)에 충효(忠孝)를 일을 삼아', <보기>의 '강호에 놀자 하니 임금을 저버리겠고 / 임금을 섬기자 하니 즐거움에 어긋나네'에서 임금에 대한 충(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③ 이 작품의 '구복(口腹)이 위루(爲累)하야', '이시면 죽(粥)이오 업시면 굴물망정' 등에서 궁핍한 생활의 어려움이 드러나지만, <보기>에는 궁핍한 생활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⑤ <보기>는 '혼자서 기로에 서서 갈 데 몰라 하노라'에서 속세와 자연 사이에서 갈등하며 속세에 대한 미련을 드러내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이 작품에서는 속세에 대해 미련을 드러내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보기 | 작품 분석

권호문, '한거십팔곡(閑居十八曲)'

[갈래] 평시조, 연시조

[해제] 이 작품은 전체 19수로 된 연시조로 현실에서 벗어나 자연 속으로 침잠하기까지의 과정을 단계적이고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보기>에 제시된 3수와 4수는 속세를 잊고 자연 속에 살고자 하는 화자의 마음과 벼슬에 대한 욕망 사이에서의 갈등이 드러나 있는 부분이다.

[주제] 유교적인 깨달음의 실천과 안빈낙도의 소망



## 기본 춘면곡

본문 68~69쪽

1 ④ 2 ③ 3 ⑤

개념 확인 문제 1 외기러기 2 편월, 오동, 잘새, 제비, 나비

**개념 연계** 개념 12 **이별의 슬픔과 그리움** : 이별의 정한은 인간의 기본적인 정서이자 한국 문학의 대표적인 정서라 할 수 있다. '춘면곡'은 임과 헤어져 상심한 남성 화자가 이별의 슬픔과 괴로운 심정을 토로하는 작품이다. 이별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화자의 태도와 정서에 주목하며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 작자 미상, '춘면곡(春眠曲)'

[갈래] 가사

[해제] 이 작품은 남성 화자가 아유원으로 가 한 여인과 사랑을 나눈 후 평생 함께 하자는 언약까지 했으나 결국 이별하게 된 후 이별의 슬픔과 여인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가사이다. 이 작품은 남성 화자가 느끼는 이별의 슬픔을 진솔하게 드러내고 있으며 여인에 대한 정감이 넘치는 정서를 다양한 표현 방법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걸작으로 꼽히고 있다.

[주제] 이별의 슬픔과 임에 대한 그리움

[작품 핵심 보기]

• '춘면곡'의 사상의 흐름

봄잠에서 깨어나 술을 마시고 아유원으로 감.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 정을 나누고 애달픈 이별을 함.

여인을 못 건디게 그리워하다가 꿈속에서 만남.(지문 부분)

입신양명하여 임을 다시 만나고자 다짐함.(지문 부분)

• 꿈의 기능

임과의 이별로 슬픔과 괴로움을 느낀.

상사(相思)하던 임을 꿈에서 다시 만남.

꿈

임을 만나고 싶은 화자의 소망을 일시적으로 성취하는 공간 → 화자의 슬픔과 괴로움을 '꿈'을 통해 해소하고자 함.

1 화자는 '반가운 님의 소식 행여 올까 바라더니'를 통해 임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식을 전하지 않는 임을 원망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삼경(三更)에 못 든 잠을 사경(四更) 말에 비로소 들어'는 임과 이별한 슬픔으로 인해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는 화자의 전전반측(顛轉反側)의 상황이라 할 수 있다.

② '꿈'은 그리워하던 임을 잠시나마 만날 수 있는 공간이다. 이러한 꿈을 '생시(生時) 삼고' 싶다는 것은 꿈이 현실이기를 바랄 만큼 임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운산(雲山)'은 임을 만나고 싶어 꾸는 꿈인 '천리몽(千里夢)'을 가리는 것으로 화자와 임 사이의 장애물을 의미한다. 따라서 임을 만나지 못하는 화자의 답답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⑤ '서중유옥안(書中有玉顏)'은 송(宋)나라 진종(眞宗)의 "권학문(勸學文)"에 나오는 구절로, '장가 가려는데 좋은 매파 없다고 한하지 말라. 책 속에는 얼굴이 옥같이 예쁜 여인이 있다네.'에서 나온 말이다. 화자가 여인과의 이별 때문에 슬퍼하기보다는 공부를 열심히 하여 언젠가 사랑하는 임을 다시 만나리라 다짐하고 있다는 것에서 유학자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다.

2 이 글은 이별의 안타까움과 임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다. <보기>에서 인간의 진솔한 감정을 드러내는 작품이 많이 창작된 것은 조선 후기 가사의 특징이라고 하였으므로 이 글은 조선 후기 가사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충신연주지사(忠臣戀主之詞)'는 임금을 그리워하는 정을 노래한 작품이다. 이 글의 화자가 그리워하는 임은 임금이 아니므로 충신연주지사를 노래한 조선 전기의 가사가 아니다.

② 이 글의 화자는 임과의 이별에 대한 슬픔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자연에서 안빈낙도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④ 이 글은 조선 후기 가사는 맞으나, 해학적인 표현과 풍자를 통해 미의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⑤ 이 글은 임과의 이별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은 맞으나, '장부의 공업'을 통해 남성 작가의 작품임을 알 수 있다.

3 <보기>는 화자의 분신인 '낙월'과 '돌'을 내세우고 있으며, 이 글은 '편월, 오동, 잘새, 제비, 나비'를 화자의 분신으로 내세워 임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보기>에는 '반벽(半壁) 청등(靑燈)'을 통해 화자의 외로움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 글에는 '호월(皓月)'을 통해 화자의 슬픔을 심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보기>와 이 글 모두 객관적 상관물을 통해 화자의 외로움을 심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이 글에서 '상사(相思)하던 우리 님을 꿈 가운데 해후하니'를 통해, <보기>에서 '정성(精誠)'이 지극하여 꿈의 님을 보니'를 통해 이 글과 <보기>는 모두 화자의 간절한 소망이 꿈으로나마 일시적으로 성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이 글은 '장부(丈夫)의 공업(功業)을 곳곳이 이룬 후의'를 통해 남성 화자임을, <보기>는 '각시님'을 통해 여성 화자임을 알 수 있다.

④ 이 글은 임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과 슬픔을 독백체로 서술하고 있으나, <보기>는 '각시님 돌이야크니와 구준 비나 되쇼셔.'를 통해 두 여인의 대화 형식을 통해 서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기 | 작품 분석]

정철, '속미인곡(續美人曲)'

[갈래] 양반 가사, 서정 가사, 정격 가사

[해제] 이 작품은 '사미인곡'의 속편으로,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임과 이별한 한 여인의 애달픈 심정에 의탁하여 표현하고 있다. '사미인곡'에 비해 순우리말의 묘미를 잘 살렸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 '사미인곡'과 달리 보조적 인물을 설정하여 두 여인 간의 대화체로 사상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작가의 분신으로 설정한 두 여인의 대화를 통해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절의 마음을 절실하게 드러내고 있다.

[주제] 임금을 그리워하는 정



본문 70~71쪽

1 ③ 2 ① 3 ③

**개념 연계** **개념 12 이별의 슬픔과 그리움** : 인간사에는 여러 종류의 이별이 있지만, 죽음으로 인한 헤어짐은 그 어떤 이별보다 감당하기 힘든 고통일 것이다. '제망매가'는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한 작품이다. '죽음'을 대하는 화자의 태도에 주목하며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 월명사, '제망매가(祭亡妹歌)'

[갈래] 10구체 향가

[해제] 이 작품은 신라 경덕왕 때의 승려인 월명사가 죽은 누이의 제사를 지내면서 부른 노래이다. 누이의 죽음을 단순히 개인의 슬픔에서 그치지 않고 삶과 죽음의 문제로 확장하여 깊이 성찰하고 있으며, 불교적 신앙심으로 이를 극복하려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죽은 누이에 대한 추모

[작품 핵심 보기]

• 시어의 비유적 의미

이른 바람	→	누이의 이른 죽음(요절)
떨어질 잎		누이의 죽음
한 가지		한 부모, 같은 핏줄

1 화자는 누이의 죽음으로 인해 삶의 허무함을 느끼다가 9구의 '아이'를 통해 시상을 전환하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허무, 그리고 이별의 슬픔을 종교적 신앙심으로 극복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반어적 표현은 나타내려는 뜻과는 반대가 되게 표현하는 방법으로 원래의 의미가 부각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은 비유적 표현을 통해 누이의 죽음에 대한 추모의 정을 드러내고 있을 뿐, 반어적 표현이 사용되지는 않았다.
- ② 이 작품에서는 과거와 현재가 대비되어 나타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화자가 내적 갈등을 보이는 부분도 찾을 수 없다.
- ④ 누이의 죽음을 자연의 섭리에 비유하고 있는 것은 맞으나, 이를 통해 운명에 순응하는 태도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 ⑤ 화자는 누이의 죽음을 '떨어질 잎'에 비유함으로써 죽음을 자연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해 안타까움과 삶의 무상감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필연적 죽음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3구에서의 '나(죽은 누이)'와 9구에서의 '나(화자)'는 서로 다른데, 이는 화자가 교체된 것이 아니라 3구에서 죽은 누이의 말을 인용한 것이다.

2 <보기>를 통해 죽은 대상은 화자의 누이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생사(生死) 길은 / 예 있으매'는 화자의 처지가 아니라, 죽은 누이의 처지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② '나는 간다는 말도 / 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에서의 '나'는 죽은 누이를 의미하므로, 이 시구에는 죽은 누이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이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다.

- ③ '바람'은 삶과 죽음을 가르는 자연의 섭리를 비유한 것으로 '이른 바람'은 누이가 어린 나이에 죽었음을 암시한다.
- ④ 한 부모에게서 태어나도 죽으면 가는 곳을 알 수 없다는 것을 통해 누이의 죽음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운 마음과 인생에 대한 무상감을 느낄 수 있다.
- ⑤ 화자는 누이의 낮이 극락세계로 간 것이라고 보고 극락세계를 의미하는 '미타찰'에서 죽은 누이를 다시 만날 것을 '도'를 닦으며 기다리겠다고 하였으므로, 누이를 잃은 슬픔을 종교적으로 극복하고자 한다고 할 수 있다.

3 <보기>는 사랑하는 임을 여원 여인을 화자로 설정하여 사별한 임에 대한 그리움과 이별의 한(恨)을 애절하게 드러내고 있는 작품으로, '육날 메투리'는 화자 자신의 머리털을 베어 만들어 살아생전 임에게 드리고 싶었던 것으로 임에 대한 화자의 헌신적인 사랑을 형상화한 소재이다.

[오답 풀이]

- ① <보기>에서 죽은 이가 떠나가는 곳은 '서역 삼만 리', '파촉 삼만 리'이고, 이 작품에서 죽은 이가 떠나간 곳은 '미타찰'이므로 그 의미가 같다.
- ② <보기>에서 '흰 옷깃'은 '수의'를 의미하는 시어로 죽음을 상징한다. 따라서 '흰 옷깃 여며 여며 가슴신 님'은 임의 죽음을 의미하며 이 작품의 '떨어질 잎' 역시 누이의 죽음을 의미한다.
- ④ <보기>에서 '부질없는 이 머리털 엮어 드릴 걸'은 임과의 못 다한 사랑에 대한 회한과 탄식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죽은 이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작품의 '가는 곳 모르온저'에 드러난 정서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 ⑤ <보기>에서 '귀촉도'는 떠나간 임과 화자를 연결해 주는 매개체이기도 하고, 애절한 사랑과 한의 객관적 상관물이기도 하다. 따라서 '제 피에 취한 새가 귀촉도 운다'는 임과 이별한 상황에서 화자가 애절한 슬픔과 한의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작품의 '도(道)' 닦아 기다리겠노라'에서는 누이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종교적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므로, 이러한 점에서 서로 비교될 수 있다.

— 보기 | 작품 분석 —

서정주, '귀촉도(歸蜀道)'

[갈래] 자유시, 서정시

[해제] 이 작품은 귀촉도 설화를 바탕으로, 사별한 임에 대한 정한(情恨)과 슬픔을 처절하게 노래하고 있다. '육날 메투리', '은장도', '은하 물', '귀촉도' 등과 같은 전통적 소재들을 사용하여 애상적인 시의 분위기를 조성하며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죽은 임에 대한 회한과 그리움

## 지식 더하기

### 죽음을 대하는 화자의 태도 비교

작품	화자의 태도
백수 광부의 처, '공무도하가'	임의 죽음에 대해 체념적 태도를 보임.
김소월, '초혼'	임과의 이별에 대한 슬픔을 직접적으로 표출함.
정지용, '유리창'	자식을 잃은 슬픔을 절제하여 표현하고, 내면적으로 극복하고자 함.
박목월, '하관'	원숙하고 절제된 감정으로 아우의 죽음을 수용함.
서정주, '귀촉도'	사별한 임에 대한 그리움을 애절하게 표출함.
천상병, '귀천'	죽음을 긍정적으로 인식함.
도종환, '옥수수밭 옆에 당신을 묻고'	재회(再會)에 대한 준비를 통해 인간적인 아픔을 극복함.

## 기본 백설이 주자진 골에 ~ / 삭풍은 나 모 곳히 불고 ~ / 수양산 바라보며 ~

본문 72~73쪽

1 ③ 2 ⑤ 3 ③

개념 확인 문제 1 의지적 2 구름 3 고사

**개념 연계** 개념 13 **연군과 우국충정** : 유교적 이념이 지배하는 봉건 사회에서 임금은 절대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문학 작품의 주된 창작층이었던 사대부들은 연군과 우국충정을 주제로 한 작품들을 주로 창작하였다. (가)~(다)는 모두 나라의 일을 걱정하는 충신들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다. 창작 당시의 시대상과 연관 지어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 가 이색, '백설(白雪)이 주자진 골에 ~'

[갈래] 평시조

[해제] 기울어져 가는 고려 왕조에 대한 지식인의 고뇌와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는 작품이다. '백설', '구름', '매화', '석양' 등의 상징적 표현을 통해 고려의 국운 쇠퇴를 한탄하는 선비의 우국충정을 우의적으로 잘 드러내고 있다.

[주제] 고려의 국운 쇠퇴에 대한 한탄과 우국충정

[작품 핵심 보기]

• 시어의 대조적 의미

매화	구름
고려를 일으킬 우국지사	고려 왕조를 위협하는 신흥 세력

### 나 김중서, '삭풍(朔風)은 나모 곳히 불고 ~'

[갈래] 평시조

[해제] 변방을 지키는 무신(武臣)의 호방하고 씩씩한 기상이 잘 드러나 있는 작품이다. 화자는 무인으로서 우국충정이라는 주제를 자신의 군센 결의를 통해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매서운 북풍이 불고 차가운 눈이 내리는 혹독한 상황 속에서도 의지를 굽히지 않고 굳건히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화자의 당당하고 호탕한 모습이 눈에 보이듯 그려지고 있다.

[주제] 무인의 호방한 기개와 우국충정

[작품 핵심 보기]

• 시의 구성과 표현 방법

초장	'삭풍'과 '명월'의 대구적 표현으로 변방의 분위기를 제시함.
중장	'일장검'을 통해 무인의 호기를 상징적으로 표현함.
종장	'긴 푸름', '큰 한소리'에 무인의 호쾌한 기상을 담아 직설적으로 드러냄.

### 다 성삼문, '수양산(首陽山) 바라보며 ~'

[갈래] 평시조

[해제] 세조의 단종 폐위에 항거한 작가의 의지를 드러낸 '절의가(節義歌)'이다. 은(殷)나라의 충신인 '백이'와 '숙제'를 자신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굳은 절개를 강조하고 있다.

[주제] 죽음을 각오한 굳은 지조와 절의

[작품 핵심 보기]

• 시어의 중의적 의미

수양산	• 백이와 숙제가 은거했던 곳 • 수양 대군
채미	• 백이와 숙제가 수양산의 고사리를 캐. • 화자가 수양 대군이 내리는 녹봉을 받음.
늪	• 주나라의 무왕 • 수양 대군

1 (나)의 초장에 나타난 계절적 배경은 매서운 추위를 떨치는 변방의 환경으로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보여 줄 뿐, 이를 통해 화자의 심리 변화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가)는 '백설(白雪)', '구름', '매화(梅花)', '석양(夕陽)'이라는 자연물을 통해 조선의 신흥 세력이 득세하는 정치적 상황을 풍자하고 있다. (나)에서는 '삭풍(朔風)', '명월(明月)'과 같은 자연물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대상을 풍자하고 있지는 않다.

② (나)는 '삭풍(朔風)', '늪'과 같은 계절적 배경을 통해 변방의 매서운 추위에도 흔들리지 않는 무인의 기개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가)의 화자는 '석양(夕陽)'에 홀로 서 이서 갈 곳 몰라 후노라'라는 표현을 통해 고려 왕조가 기울어 가는 상황에서 고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④ (다)는 '수양산(首陽山)', '채미(採薇)' 등의 중의적 표현을 통해 '지조와 절의'라는 주제를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가)에는 중의적 표현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⑤ (다)는 중장에서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이제(夷齊)'를 비판하면서 화자의 절의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나)에는 설의적 표현이 나타나 있지 않다.

2 (다)의 '이제(夷齊)'는 절개를 지키기 위해 수양산에 들어가 고사리를 캐 먹으며 연명하다가 굶어 죽은 인물들이다. (다)의 화자가 주나라 땅에서 난 고사리를 캐어 먹은 것까지 비판의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절개를 지키고자 하는 자신의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기 위함이다. 따라서 은나라 말기의 충신이었던 '이제(夷齊)'를 우국의 길을 걷지 않은 인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오답 풀이]

① (가)의 화자는 기울어 가는 고려 왕조의 국운을 한탄하며 방황하고 있으므로 나라의 운명을 생각하며 고뇌하는 지식인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② (가)의 '매화(梅花)'는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자연물이므로 기울어 가는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고려의 우국지사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③ (나)의 화자는 '긴 푸름' 큰 한소리에 거칠 것이 업세라'와 같이 무인으로서의 호방한 기개와 우국의 이념을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④ (다)의 화자는 신하로서의 절개를 지키고자 굶어 죽을 것을 각오하고 있으므로 공적인 삶을 위해 사적인 삶을 버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은 고려 유신을 의미하며 험악한 기세를 드러내는 '구름'과 대조되어 긍정적 대상을 환기한다. 반면 <보기>의 ㉡는 새 왕조에 협력하기를 강요하는 외부적 압력을 의미하며, 세한 고절의 속성을 지닌 '대나무'와 대조되어 부정적 대상을 환기한다.

[오답 풀이]

① ㉠은 고려 유신을 의미하므로 화자 자신을 비유한 표현으로 이해할 수 없다. ㉡는 외부적인 시련이나 고통을 상징하므로 화자 자신이라 볼 수 없다.

- ② ㉠과 ㉡는 모두 화자의 반성과 성찰을 유도하고 있지 않다.  
 ④ ㉠은 화자 자신과 정치적 신념이 동일한 세력으로 동경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는 새 왕조의 신흥 세력으로 고려 유신인 화자에게는 비판과 풍자의 대상으로 인식된다고 할 수 있다.  
 ⑤ ㉠과 ㉡는 모두 존재의 지속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

보기 | 작품 분석

원천석, '눈 마자 휘어진 대를 ~'

[갈래] 평시조

[해제] 이 작품은 대나무를 지조와 절개를 지닌 대상으로 예찬하면서 고려 왕조에 대한 충절을 지키려는 화자의 모습을 그려 낸 시조이다. 눈 속에서도 푸른빛을 잃지 않는 대나무의 변함없는 속성을 통해 두 왕조를 섬길 수 없다는 화자의 굳은 절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주제] 고려 왕조에 대한 충절

## 심화 사미인곡

본문 74~75쪽

1 ② 2 ② 3 ④

개념 연계 개념 13 연군과 우국충정 : 사대부들은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임금을 그리워하거나 우국충정을 노래하였다. '사미인곡'은 정철이 관직에서 물러나 고향에 머물면서 임금에 대한 충정과 그리움을 노래한 가사이다. 작가가 자신의 연군지정(戀君之情)을 드러내기 위해 어떤 방식을 활용하였는지 살펴보고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 정철, '사미인곡(思美人曲)'

[갈래] 양반 가사, 서정 가사, 정경 가사

[해제] 작가가 50세 되던 해에 조정에서 물러나 전남 창평에 은거하며 지낸 때 지은 작품으로, 뛰어난 우리말 구사와 세련된 표현으로 속편인 '속미인곡'과 함께 가사 문학의 최고 걸작으로 꼽힌다.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나타내지 않고, 작가 자신을 임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여인으로, 임금을 임으로 설정하여 외로운 신하의 처지와 임금을 향한 변함없는 충정을 애절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 작품은 계절의 변화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는데, 계절에 따라 변화된 자연의 모습을 그리면서 임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

[주제] 연군(戀君)의 정

[작품 핵심 보기]

• 계절별 주요 소재의 상징적 의미

계절	주요 소재	상징적 의미
봄	미화	임에 대한 화자의 충정
여름	옷	임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과 정성
가을	청광	임의 선정(善政)에 대한 갈망
겨울	양춘	임에 대한 화자의 염려

1 이 작품은 4음보 연속체의 가사로, 음보의 규칙적인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작품은 계절에 따른 자연의 변화를 그리면서 그 속에서 느끼는 연군의 정을 드러내고 있을 뿐, 인간과 자연을 대비하고 있지는 않다.

- ③ '꽃 디고 ~ 슈막(繡幕)이 뷔어 있다.'에서 자연의 모습과 화자의 처지를 대조하고 있지만, 대조적 소재를 열거하여 시적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④ 자조적 표현은 자기를 비웃는 듯한 표현을 말하는데, 이 작품의 화자는 스스로를 비웃고 있지 않다. 이 작품의 화자는 임에 대한 자신의 정성과 변함없는 사랑을 애뜻하게 표현하고 있다.  
 ⑤ 이 작품은 계절의 변화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으나, 계절의 변화에 따라 임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변하고 있지는 않다. 계절이 변해도 화자의 임에 대한 그리움과 연정의 태도는 변함이 없다.

2 '산'과 '구름'은 작가와 임금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상징하는 것으로, 작가의 탄핵을 주도한 정적(政敵)을 가리킨다. 따라서 '산(山)인가 구름인가 머흐도 머흘시고'에는 정적들로 인해 임금과 작가의 재회, 즉 자신의 정치적 복권이 어려운 상황에 대한 작가의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오답 풀이

- ① '미화(梅花)'는 임금에 대한 작가의 충정을 상징한다. 따라서 '더 미화(梅花) 것거 내여 님 거신 디 보내오저'에는 자신의 충정을 임금에게 알리고 싶은 작가의 소망이 반영되어 있다.  
 ③ 차가운 '양금(鴛鴦)'에는 독수공방의 외로움이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양금(鴛鴦)도 초도 출사'에는 관직에서 물러나면서 임금 곁을 떠난 작가의 외로운 심정이 함축적으로 드러나 있다.  
 ④ 하루를 열두 때로, 한 달을 서른 날로 세분화하여 표현한 것은 한순간도 임을 잊은 적이 없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후루도 열두 때 훈 돌도 설흔 날'에는 오매불망 임금만을 생각하며 인고의 시간을 보내는 작가의 충정이 담겨 있다.  
 ⑤ 화자는 임이 자신을 아직도 사랑하는지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임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님이야 날인 줄 모르셔도 내 님 조초려 후노라'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임금에 대한 충정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작가의 일편단심이 담겨 있다.

3 <보기>의 초장에서 화자는 자신의 상상력을 통해 '흥(興)'이라는 추상적 대상을 주관적으로 변용하여 나귀에 신는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 작품의 ㉡에서도 화자는 자신의 상상력을 통해 인간이 마음대로 조작할 수 없는 자연물인 '양춘(陽春)'을 주관적으로 변용하여 그것을 부쳐 내서 임금께 보내고 싶다고 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은 쌀쌀한 가운데서 남몰래 풍기는 매화의 그윽한 향기를 예찬하고 있는 것으로, 대상의 주관적 변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② ㉡은 녹음이 우거진 자연과 달리 임의 부재로 인해 비단 휘장이 적막하고 수놓은 장막이 비어 있다는 것으로, 대상의 주관적 변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③ ㉢은 임금을 상징하는 '돌'과 '별'을 통해 임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대상의 주관적 변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⑤ ㉤은 죽어서 뱀나비가 되어 임의 곁에 있고 싶다는 뜻으로 임을 향한 일편단심을 지키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으나, 대상의 주관적 변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보기 | 작품 분석

김천택, '전원(田園)에 나른 흥(興)을 ~'

[갈래] 평시조

[해제] 자연에서 풍류를 싣듯 즐기고 집으로 돌아와, 거문고와 서책을 벗 삼아 한가롭게 여생을 보내고자 하는 화자의 유유자적한 삶의 태도가 잘 드러나 있는 작품이다.

[주제] 전원에서 느끼는 흥취와 풍류

## 기본 붉가버슨 아해 | 들리~ / 두터비 푸리를 물고~ / 댁들에 동난지이 사오~

본문 76~77쪽

1 ④ 2 ③ 3 ⑤

개념 확인 문제 1 고추잠자리 2 희화화 3 현학적

**개념 연계** **개념 14 부정적 현실 비판**: 고전 시가, 특히 사설시조에서는 세상의 모순이나 부정적인 특정 대상을 비판하는 작품들이 창작되기도 하였다. (가)~(다)는 모두 부조리한 현실이나 부정적인 대상을 비판·풍자하고 있다. 거짓으로 남을 속이는 세태, 힘없는 백성을 괴롭히는 부패한 관리들이나 권위 의식에 사로잡혀 허장성세를 일삼는 양반 계층, 현학적인 세태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각 작품에 제시된 비판의 대상을 파악하고 그 대상을 어떤 수법으로 드러내고 있는지 살펴봄과 작품을 감상하도록 한다.

### 가 이정신, '붉가버슨 아해(兒孩) | 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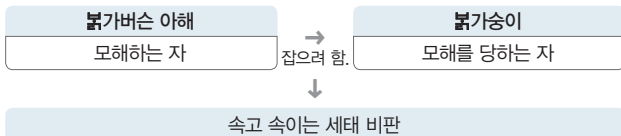
[갈래] 사설시조

[해제] 이 작품은 벌거숭이 아이들이 고추잠자리를 거짓말로 유인하여 잡으려고 하는 모습을 통해 서로 속고 속이는 세태를 해학적으로 풍자하고 있다.

[주제] 거짓으로 남을 속이며 해하려는 세태 비판

[작품 핵심 보기]

• 작품의 구조



### 나 작자 미상, '두터비 푸리를 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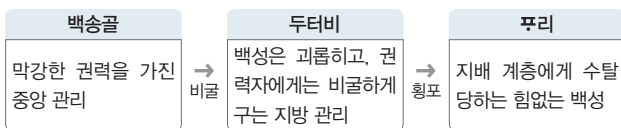
[갈래] 사설시조

[해제] 이 작품은 힘없는 백성 앞에서는 군림하고 높은 권력자에게는 굽실거리는 탐관오리의 횡포와 비굴함을 '두터비'의 행동과 처신을 통해 우의적으로 풍자하고 있다.

[주제] 백성을 괴롭히는 탐관오리의 횡포와 허세에 대한 비판

[작품 핵심 보기]

• 시어의 상징적 의미



### 다 작자 미상, '댁들에 동난지이 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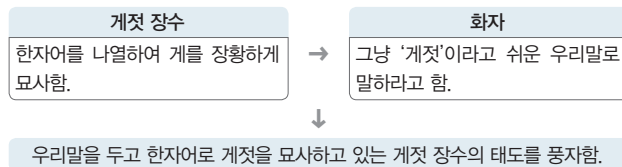
[갈래] 사설시조

[해제] 이 작품은 쉬운 말을 두고 괜히 어려운 한자어를 써서 유식한 체 과시하는 게절 장수의 모습을 통해 당시의 현학적인 세태를 날카롭게 풍자하고 있다. 대화의 방식과 감각적인 의성어를 사용하여 표현함으로써 시장 거리에서 상거래하는 실제 장면을 보는 듯한 생동감과 사실감이 느껴진다.

[주제] 현학적인 태도에 대한 비판

[작품 핵심 보기]

• 화자의 태도



1 (가)에서는 중장에서 '붉가버슨 아해(兒孩)'들이 고추잠자리를 잡기 위해 거짓으로 꾸며 하는 말을 인용하여 남을 속이는 세태를 드러내고 있고, (나)에서는 중장에서 '두터비'의 자화자찬(自畫自讚)하는 말을 인용하여 양반들의 허장성세(虛張聲勢)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다)에서는 게절 장수와 손님들의 말을 인용하여 현학적인 태도에 대해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가)와 (나)에서는 특별히 과장된 표현이 나타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의 게절 장수의 말에서 약간의 과장이 드러나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도 과장된 표현을 통해 극적 상황을 강조한다고는 볼 수 없다.
- ② (나)는 '두터비'와 '푸리', '백송골'의 대응 관계를 통해 권력층의 위선적인 모습을 우의적으로 풍자하고 있지만, (가)와 (다)는 우화적 수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 ③ (나)와 (다)에서는 부정적인 대상을 희화화하여 해학과 풍자의 효과를 얻고 있지만, (가)에서는 대상을 희화화하여 표현하고 있지 않다.
- ⑤ (가)~(다) 모두 감정 이입을 통해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2 게절 장수가 우리말을 두고 한자어를 사용한 것은 자신이 파는 물건을 대단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 양반 계층처럼 지식을 과시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를 약자 위에 군림하려는 인간의 속물근성으로 볼 수는 없다. (다)의 화자는 쉬운 우리말을 두고도 거북하게 한자어를 나열하여 수다스럽게 게를 묘사하는 게절 장수를 통해 당시의 현학적인 세태를 풍자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다)는 대화체의 방식을 활용하여 장면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관념적이던 시조의 표현을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② 게의 모습을 과장해 한자어로 장황하게 설명하는 게절 장수의 모습에서 웃음이 유발되는데, 이는 사설시조의 해학적 특성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게절 장수를 통해 작가가 보여 주고자 하는 것은 권위적이고 현학적인 태도를 지닌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다. (다)는 이를 풍자적 수법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청장(淸醬) 아스숙하는 동난지이'라는 구절에서 의성어를 사용하여 게절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시조가 보인 우아한 기품과 균형감을 강조하는 관습적 미의식을 넘어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인간의 세속적인 모습을 실감 나고 생동감 있게 그려 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식 더하기

사설시조의 특징

사대부 계층이 주 창작층이었던 평시조와 달리, 사설시조는 중인층 객객이나 평민층이 주 창작층이었다. 사대부들에게 시조가 여가를 즐기는 한 양식이었던 반면, 평민들에게는 절실한 자기표현의 양식이었다. 사설시조는 평시조의 기본형에서 6구 중 어느 한 장이 2구 이상 길어진 형태이기 때문에 평민들의 구체적인 생활상과 진솔한 감정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형식이었다.



3 '두터비'가 '백송골(白松鵑)'을 두려워하는 것은 맞지만, '백송골'이 위협에 빠진 '포리'를 구원해 줄 의도를 지니고 있는지는 (나)에서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풀이**

- ① ㉠~㉢은 모두 인간 세상의 모순과 부조리함을 비판하려는 화자의 의도를 우의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설정한 소재라고 할 수 있다.  
 ② ㉠은 ㉡을 괴롭히고, ㉢은 ㉡을 괴롭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대립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은 ㉡을 잡으려고 거짓말로 속이며 유혹하고 있다.  
 ④ (가)에서 ㉠은 거짓으로 남을 모해하는 자를 의미하고, (나)에서 ㉢은 부패한 관리를 의미하므로 화자가 부정적으로 여겨 풍자하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심화** 고시 8 / 산민

본문 78~79쪽

1 ④ 2 ⑤ 3 ④

**개념 연계** **개념 14 부정적 현실 비판** : 부조리한 현실에 대해 비판하는 작품은 평민 계층뿐만 아니라 진보적인 지식인에 의해서도 창작되었다. 그들은 백성들이 관리들의 횡포로 고통받는 모습이나 피폐한 농촌 현실, 불평등한 사회 제도 등을 폭로하고 비판하였다. (가)와 (나)는 사대부 계층에 속하는 작가가 부정적 현실에 대해 날카롭게 고발한 작품들이다. 힘없는 백성들에게 가해진 부패한 관리들의 횡포가 얼마나 극심하였을지 작품을 통해 추측해 보고, 사대부인 작가가 이와 같은 작품을 창작한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하며 감상해 보도록 한다.

**가 정약용, '고시(古詩) 8'**

[갈래] 한시(5언 고시)

[해제] 이 작품은 다산 정약용의 '고시(古詩) 27수' 중의 하나로, 조선 후기 사회에서 지배 계층의 횡포와 피지배 계층의 어려움을 우의적으로 풍자한 한시이다.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지배층과 그들로부터 끊임없이 수탈당하며 고난의 삶을 이어 가는 피지배층의 모습을 황새와 뱀, 그리고 제비의 관계로 형상화하고 있다.

[주제] 탐관오리의 수탈과 횡포 풍자

[작품 핵심 보기]

• 시어의 대립적 의미

제비	황새, 뱀
착취를 당하는 힘없는 백성	수탈과 착취를 일삼는 지배 계층

**나 김창형, '산민(山民)'**

[갈래] 한시(5언 배율)

[해제] 이 작품은 포악한 정치를 피해 호랑이가 나오는 험한 산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화전민들의 가련한 처지를 그리고 있다. 그들의 열악한 삶의 모습을 통해 가렴주구를 일삼는 지배층의 횡포를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주제] 산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삶

[작품 핵심 보기]

• 백성들의 고달픈 삶

산중	평지
- 고단하고 외로운 공간 - 호랑이의 위협이 있는 공간	호랑이의 위협은 없지만 벼슬아치의 횡포가 심한 공간

1 (가)와 (나)에서는 백성들을 수탈하는 관리들과 피해를 당하는 백성들의 고통을 소재로 삼아 권력을 가진 자들의 횡포를 고발하고 있다. 따라서 (가)와 (나)에는 강자와 약자의 갈등, 억압적 수탈 구조를 지닌 사회의 단면이 반영되어 있다고 추리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가)와 (나)에 등장하는 '제비'(백성)는 '황새'·'뱀'(지배 계층)과 권력을 다룰 만한 힘을 지닌 계층이라고 볼 수 없다.  
 ② (가)와 (나)에서는 집을 빼앗긴 가난한 자들의 설움이 드러나 있지만, 이를 부자와 가난한 자의 격차에서 비롯된 경제적 갈등이라고 볼 수는 없다. 백성들의 가난은 권력에 의한 수탈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③ (가)의 '제비'나 (나)의 '아낙네'와 '남편'은 보금자리를 잃고 어쩔 수 없이 떠도는 신세이기 때문에 비록 산속에 산다고 해도 이를 통해 자연 친화적 성향을 가졌다고 볼 수는 없다.  
 ⑤ (가)의 '제비'나 (나)의 '아낙네'와 '남편'을 이웃이 없는 곳으로 내몬 것은 권력을 지닌 자들이다. 따라서 부조리한 소통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자의 수탈 구조가 문제라고 볼 수 있다.

2 (가)에서 '황새'와 '뱀'은 '제비'가 느릅나무 구멍이나 해나무 구멍과 같은 편안한 보금자리에서 살지 못하도록 괴롭히는 존재이다. (나)에서 '아낙네'와 '남편'을 평지에서 살지 못하게 하고 산중에서 살도록 고통을 준 존재는 '벼슬아치'이다.

**오답 풀이**

- ① (가)의 '제비'와 (나)의 '아낙네'는 자신들을 수탈하는 대상을 피해 삶의 터전을 떠나 멀리 와 있는 존재라는 점에서 그 처지가 같다.  
 ② '느릅나무'와 '해나무'는 구멍이 많아 '제비'가 편안히 머물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지닌 공간이며, '평지'는 땅을 일구어야 하는 산과 달리 농사를 짓고 살기에 좋은 환경을 지닌 공간이다.  
 ③ (가)의 '사람'은 '제비'가 지저귀는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 동원된 대상일 뿐, '제비'의 처지를 살펴 안타까워하는 것은 화자이다. 반면 (나)의 화자인 '나'는 '아낙네'의 처지를 듣고 '슬프다 외딴 살이 어찌 좋으리'라고 '아낙네'에 대한 연민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④ (가)의 '황새'와 '뱀'은 '제비'를 괴롭히는 존재이고, (나)의 '벼슬아치'는 '산민(아낙네와 그 남편)'을 괴롭히는 존재라는 점에서 그 역할이 같다.

3 (가)의 작가인 정약용은 기존 한시의 관습적인 성격을 탈피하고 민중들의 고통에 눈을 돌려 백성들을 괴롭히는 지배 계층에 대한 비판 의식을 담은 작품들을 썼다. 따라서 이런 작품을 통해 사회적 부조리를 고발하고, 이를 개선하여 올바른 정치를 해야겠다는 위정자들의 각성을 불러일으키고자 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가)는 당시의 피폐한 농촌 현실을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므로 사람들의 감성과 인성을 고양하기 위한 시로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  
 ② (가)의 내용에서 민중에게 그들의 처지를 수용하라고 설득하려는 의도를 찾아볼 수 없다.  
 ③ <보기>의 내용을 참고하면, 시를 통해 사회적 약자와 소통하고 일체감을 느끼는 것보다 그들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널리 알리는 것이 작가의 의도라고 볼 수 있다.  
 ⑤ 민중의 비참한 처지를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가)의 내용으로 보아 그들에게 기쁨과 여유를 선사하려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이회

본문 82~83쪽

01 ④ 02 ④ 03 ③ 04 ② 05 ⑤ 06 ②

[01~03] 작자 미상, '유산가(遊山歌)'

[갈래] 잡가

[해제] 이 작품은 조선 후기 경기, 서울 지방을 중심으로 불린 12잡가 중의 대표작인 작품으로, 자유분방한 언어 구사를 통해 봄을 맞이하여 즐기는 유희적 감흥을 형상화하고 있다. 4·4조의 운율이 주조를 이루고 있으나 파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가사적 성격의 잡가라고 할 수 있다. 의성어와 의태어의 활용, 대구와 열거 등 다양한 표현 기교를 활용하여 봄의 아름다운 정취를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주제] 봄 경치 완상과 예찬

01 '원산(遠山)은 첩첩(疊疊), 태산(泰山)은 주춤하여, 기암(奇岩)은 층층(層層), 장송(長松)은 낙락(落落)을 통해 원경(山)에서 근경(태산 → 기암 → 장송)으로 시선을 이동해 가며 정경을 묘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장송(長松)은 낙락(落落), 에이 구부러져 광풍(狂風)에 흥을 겨워 우쭐우쭐 춤을 춘다'에서 봄날의 흥취를 자연물에 투영하여 표현하고 있다.
- ② '때 좋다 벗님네야, 산천경개(山川景概)를 구경을 가세'에서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③ '어주 축수 애심춘(漁舟逐水 愛心春)이여든 무릉도원(武陵桃源)이 에 아니냐' 등의 설의적 표현을 통해 자연을 완상하며 느끼는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⑤ '유상 양비(柳上鶯飛)는 편편금(片片金)이요, 화간 점무(花間蝶舞)는 분분설(紛紛雪)이라'와 같은 시각적 심상을 통해 피꼬리가 날고 나비가 꽃 사이를 옮겨다니는 봄의 계절감을 드러내고 있다. 또 '기러기 무리져서 거지중천(居之中天)에 높이 떠서 두 나래 훨훨 펴고, 펄펄펄 백운(白雲間)에 높이 떠서 천리 강산 머나먼 길을 어이 갈고 슬피 운다'와 같은 청각적 심상을 통해 기러기가 봄이 되어 다시 추운 북쪽으로 먼 길을 떠나는 봄의 계절감을 드러내고 있다.

02 <보기>에서 가사의 기본 음보율은 4음보라고 하였다. 그런데 '기화요초(琪花瑤草) 난만 중(爛漫中)에 꽃 속에 잠든 나비 자취 없이 날아난다'는 6음보의 율격을 보여 주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화란 춘성(花爛春城)하고 만화방창(萬化方暢)이라'라는 표현은 고전 시가에서 봄이 왔음을 나타낼 때 자주 사용하는 상투적인 한자어 표현이다. 따라서 이는 창작 과정에서 다른 노래말을 차용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 ② '때 좋다 벗님네야, 산천경개(山川景概)를 구경을 가세'라는 표현은 자연 속에서 노닐기를 좋아하는 유희적 성향을 드러낸 것으로, 이는 <보기>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유희적이고 향락적인 서민들의 삶의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보기>에서 잡가에 서민의 언어인 우리말 외에 양반의 언어인 한자어가 빈번하게 사용된 이유는 새로운 향유 계층으로 등장한 양반의 구미에 맞는 요소를 가미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 ⑤ '적다정조(積多鼎鳥)는 일년풍(一年豐)이라'라는 표현에는 풍년을 염원하는 작가의 의식이 나타나 있다. 따라서 이는 <보기>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현재 지향적인 하층 계급인 서민들의 삶의 태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03 기러기가 '천리 강산 머나먼 길을 어이 갈고 슬피 운다'는 표현은 철새인 기러기가 봄이 되어 다시 추운 북쪽으로 먼 길을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연을 즐기는 유희적인 내용 전개로 볼 때 '감정 이입'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기러기와 화자 자신을 동일시하여 봄날에 느끼는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③에서는 피꼬리들이 나는 모습을 '조각조각 흩어지며 날리는 금'에, 꽃 사이를 나는 나비를 '가루처럼 흩날리는 눈'에 비유하여 묘사하고 있다. 이 같은 은유법에 의한 묘사는 봄날의 화려한 정경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한 선명한 느낌을 주는 효과가 있다.
- ② ⑥에서 화자가 버드나무를 보고 옛 중국의 고사에서 오류선생으로 불렸던 '도연명'을 연상하며 이곳이 경치가 빼어난 선경(仙境), 즉 이상향인 '연명 오류'라고 말한 것은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드러낸 것이다.
- ④ ④에서 '장송'은 봄날에 느끼는 화자의 흥취가 투영된 객관적 상관물로, '우쭐우쭐'이라는 의태어와 장송이 '춤을 춘다'는 역동적 이미지를 통해 아름다운 봄 경치를 완상하며 느끼는 화자의 흥취가 잘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다.
- ⑤ ⑤에서는 '팔팔', '주루룩', '쌀쌀' 등의 의성어, 즉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살린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폭포수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생동감을 느낄 수 있다.

[04~06]

(가) 정지상, '제변산소래사(題邊山蘇來寺)'

[갈래] 한시(7언 율시)

[해제] 이 작품은 작가가 명승지인 변산에 있는 소래사를 탐방하고 쓴 한시로, 절의 풍경과 그곳에서 만난 노승의 삶을 예찬하고 있다. 작가는 산사의 고즈넉하고 청정한 분위기를 잘 묘사하고 있으며, 인간사의 번뇌를 초탈하여 정적에 몰입한 노승의 모습에 깊은 감명과 탄탄을 표현하고 있다.

[주제] 변산 소래사의 탈속적 풍경

(나) 이이, '낙지가(樂志歌)'

[갈래] 은일 가사

[해제] 이 작품은 서사, 춘사, 하사, 추사, 동사, 결사의 여섯 단락으로 이루어진 장편 은일 가사로, 세속적인 부귀영화의 덧없음을 인식하고 자연에 은거하며 지내는 삶의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다. 화자는 백 년도 못 사는 인간의 부귀공명을 부질없는 것으로 보고, 속세를 떠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안분지족하며 한가롭게 지내고자 하는 삶의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주제] 자연 속에서 은거하며 지내는 삶의 즐거움

04 (가)는 '기이하구나, 눈썹 긴 늙은 스님은 / 긴 세월 세상 일 꿈도 꾸지 않네'에서 감탄형 어미를 이용한 영탄적 어조를 통해 인간사에 초연한 산승의 모습에 감탄하고 있는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나) 역시 '여년(餘年)이 얼마런고, 이 아니 즐거운가'에서 설의의 형식을 이용한 영탄적 어조를 통해 속세를 떠나 자연 속에서 노니는 한가로운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가)와 (나) 모두 독백체를 통해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나)는 '일체의 다툼이 없으니 시기할 이 누구인가, '여년(餘年)이 얼마런고,

이 아니 즐거움'에서 설의적 표현이 나타나고 있으나, (가)에서는 설의적 표현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④ (나)는 '지척이 천 리로다'라는 역설적 표현을 통해 객관적 거리를 주관적 거리로 변용함으로써 속세와 거리를 두고 자연 속에서 한가로운 삶을 누리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가)에는 역설적 표현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⑤ (가)는 여러 감각적 심상을 통해, (나)는 역설법, 설의법 등을 통해 시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을 뿐, (가)와 (나) 모두 비슷한 사물을 나열하고 있지는 않다.

**05** '뜬구름 흐르는 물'은 시끄러운 인간사가 끊이지 않는 산문 밖에서 떠돌고 있는 나그네의 모습을 비유하는 이미지로, 탈속적인 공간에서 번뇌를 초탈한 삶을 살고 있는 노승의 이미지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하늘에 떠 있는 한 점 구름을 나그네가 느끼는 인생의 허무함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2구를 보면, 소재사는 '북두성과 견우성이 손에 잡힐 듯'한 깊은 산속에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각색하여 숲속 계곡의 맑은 물소리를 효과음으로 사용하여 깊은 산의 정취가 느껴지도록 하려는 연출 계획은 적절하다.

② 7, 8구를 보면, 노승은 '긴 세월 세상일은 꿈도 꾸지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를 각색하여 눈을 감고 명상에 잠긴 노승의 표정을 클로즈업하여 인간사의 번뇌를 초월한 삶의 모습을 강조하려는 연출 계획은 적절하다.

③ 6구를 보면, 산사의 적막한 공간에 달빛이 점점 밝아지고 원숭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이러한 시각적, 청각적 이미지는 산사의 적막감을 더욱 부각하고 있다. 산사의 적막감을 세속적 욕망을 초탈한 스님과 어우러지며 산사의 청정하고 탈속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따라서 산사를 배경으로 달빛과 원숭이의 울음소리를 화면에 담아 산사의 청정한 분위기를 살리려는 연출 계획은 적절하다.

④ 1구를 보면, 산사의 분위기는 적막하다. 그리고 4구를 보면, 산사에는 푸른 이끼가 끼어 있다. 이처럼 고즈넉한 산사에서 스님이 산문을 닫고 있는 것을 본 화자는 인간사의 시끄러운 모습을 생각하고 깊은 감명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를 각색하여 산사의 푸른 이끼와 노승의 정갈한 몸짓을 화면에 담아 산사의 탈속적인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연출 계획은 적절하다.

**06** (나)의 맥락상 '세로(世路)', 즉 세상으로 통하는 길은 벼슬을 통한 입신양명을 의미한다. 따라서 세로에 발을 끊는다는 것은 입신양명이라는 세속적 욕망과의 단절을 의미한다. 화자는 이처럼 세계의 한 축인 세속을 멀리하고 자연 속에 은거하여 요순의 도를 즐기며 신선처럼 자유롭고 한가한 삶을 누리고 있다. 따라서 화자가 공명(功名)을 추구하고자 하나 현실의 모순 때문에 이를 이루지 못한 채 절망감에 빠져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누항'과 '단표'는 세상으로 통하는 길에 발을 끊고 자연에 은거하여 정신적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거쳐야 하는 '비움'의 과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누항'에서의 '안거'와 '단표'의 시름없는 삶, 즉 안빈낙도(安貧樂道)의 삶에는 세속적 욕망을 초월한 화자의 내면 의식이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내 몸은 속인(俗人)이나 내 마음 신선이오'라는 표현에는 세계를 세속적 욕망이 지배하는 인간 세상, 즉 속세와 세속적 욕망을 초월한 자연으로 구분하려는 이분법적 사고가 드러나 있다. 화자는 속세를 벗어나 자연에 은거하여 신선과 같은 정신적 자유를 누리려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④ '신선'이라는 시어에는 세속적 가치를 초월한 삶을 지향하는 작가의 개인적인 내면세계가 반영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관습적인 표현 속에 나타난 작가의 개인적인 내면세계는 곧 당대 선비들의 보편적인 의식과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⑤ 시비가 없는 '뜬구름'과 한가한 '날아다니는 새'에는 세속을 초월하여 정신적 자유를 누리고 있는 화자의 정서가 투영되어 있다.

## 02 회

본문 84~85쪽

01 ⑤ 02 ④ 03 ④ 04 ⑤ 05 ② 06 ⑤

### [01~03] 권구, '병산육곡(屏山六曲)'

[갈래] 평시조, 연시조

[해제] 이 작품은 고향 안동에서 태어나 평생 벼슬에 뜻을 두지 않고 자연과 더불어 살며 학문을 닦았던 작가 권구의 유유자적하는 생활의 정취가 잘 드러난 연시조이다. <제4수>와 <제5수>에서 험난한 정치 현실에 대한 우려와 그런 현실을 외면하지 못하는 화자의 인간적인 면모가 나타나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자연과 더불어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은자(隱者)의 심정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다. 자연 속에서 자연과 벗하며 사는 즐거움을 여섯 수로 노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이항의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과 같은 육가계(六歌系) 시조의 맥을 잇고 있다.

[주제] 자연 속에서 안빈낙도하는 삶

**01** 이 작품에서 화자는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직접적으로 표출하거나 자신과 처지가 비슷한 대상에 감정을 이입하여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와 반대로 표현하는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 오답 풀이

① <제4수>에서 '두견(杜鵑)'은 의지할 곳 없는 화자의 외로움과 쓸쓸함이 투영된 대상이고, '백조(百鳥)'는 화자의 서러운 심정이 투영된 대상이다. 즉, 이들은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이므로 화자와 일체감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제5수>의 초장 '저 가막이 좇지 말아 이 가막이 좇지 말아'에서 대구의 방식을 사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③ <제4수>에서 '달', '두견(杜鵑)', '낙화(落花)', '백조(百鳥)' 등의 자연물을 통해 애상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④ 창작 당시의 혼란한 정치 상황을 상징하는 '낙화광풍(落花狂風)', 서로 헐뜯는 세력을 상징하는 '가막이' 등과 같은 상징적 시어를 통해 주제 의식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02** <제4수>의 '낙화광풍(落花狂風)'은 '꽃잎을 떨어뜨릴 정도로 강하게 부는 바람'을 의미한다. <보기>를 참고할 때, 이는 정치적으로 혼탁하고 험난한 현실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백구(白鷗)'는 자연에 은거하며 유유자적하려는 화자의 벗으로, 한가롭게 살고 싶은 화자의 심정을 잘 보여 주는 소재로 볼 수 있다.

② '세간 소식(世間消息)'은 '어조(漁釣) 생애(生涯)'와 대비를 이루는 시어로, 자연에 은거하며 살고 있는 화자가 애써 멀리하려는 혼탁한 세상일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③ '보리밥'과 '파 생채(生菜)'는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소박한 음식들로, 화자의 소탈한 태도와 안빈지족하는 삶을 보여 주는 소재로 볼 수 있다.

⑤ 화자는 차가운 안개가 내린 저문 날에 갈 곳이 없어 방황하는 '편편(翩翩) 고봉(孤鳳)'을 붙성히 여기고 있다. 이 '고봉(孤鳳)'은 화자와 같은 처지에 놓인 대상으로 포부를 펼칠 수 없어 방황하는 화자의 모습을 보여 주는 대상이다. 따라서 '고봉(孤鳳)'을 힘있게 하는 '야림(野林) 한연(寒煙)'은 그러한 화자의 갈등을 더욱 심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03** <보기>에서 ‘부귀(富貴)’와 ‘빈천(貧賤)’은 의미상 서로 대조를 이루는 시어이다. 이러한 시어의 대조를 통해 속세의 일과 욕심을 잊고 살아가겠다는 화자의 태도를 부각하고 있다. <제5수>에서 ‘가막이’는 서로 혈통은 세력들을 의미하며, ‘고봉(孤鳳)’은 혼탁한 속세를 피해 홀로 외로이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화자를 상징한다. 따라서 둘은 의미상 대조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천심 절벽(千尋絕壁)’과 ‘일대 장강(一帶長江)’은 화자가 거처하는 고향의 풍경을 구성하는 자연물이다.
- ② ‘모재(茅齋)’와 ‘북창하(北窓下)’ 모두 화자가 살고 있는 집을 의미한다.
- ③ ‘두견(杜鵑)’과 ‘백조(百鳥)’는 모두 혼탁한 세상을 떠나 은거하는 화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자연물이다.
- ⑤ ‘죽간(竹竿)’은 대나무로 만든 낚싯대로 화자의 유희자적(遊逸自適)한 삶을 보여 주는 소재이며, ‘무릉(武陵)’은 화자가 현재 만족하며 살아가는 고향으로 볼 수 있다.

**[04~06] 작자 미상, ‘상사별곡(相思別曲)’**

**[갈래]** 애정 가사

**[해제]** 이 작품은 임과 이별한 여인의 외로움과 임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조선 후기 가사이다. ‘상사(相思)’는 서로를 생각하고 그리워함을 의미한다. 4음보의 연속체로 운율을 형성하고 있으며, 비유와 과장, 여러 자연물을 활용한 표현을 통해 화자의 처지와 정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12가사의 하나로 남녀의 순수한 연정을 유교적 굴레에서 벗어나 거침없이 표현한 점이 특징이다.

**[주제]** 독수공방의 외로움과 임에 대한 그리움

**04** 이 작품은 임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심정이 독백적 어조로 일관성 있게 전개되고 있을 뿐, 대화의 형식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 ① ‘비나이다 하느님께 임 삼키라 비나이다’, ‘근원(根源) 흘러 물이 되어 깊고 깊고 다시 깊고 / 사랑 모여 뫼가 되어 높고 높고 다시 높고’와 같은 시구에서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화자의 정서와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 ② ‘내가 사랑하는 것같이 임도 나를 생각하는가 / 날 사랑하던 끝에 남을 사랑하려는가’, ‘무정(無情)하여 그러한가 유정(有情)하여 이러한가’와 같은 시구에서 설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가 임에게 자신의 심정을 호소하는 듯한 느낌을 강화하고 있다.
- ③ ‘어린 양자(樣姿) 고운 소리 눈에 암암(黯黯)하고 귀에 쟁쟁(錚錚)’, ‘산은 첩첩(疊疊) 고개되고 물은 충충 소(沼)이로다’와 같은 시구에서 의태어와 의성어의 사용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이 작품은 임과 이별하고 독수공방하는 여인을 화자로 설정하여 여성적인 어조를 사용함으로써 화자의 외로움과 임에 대한 그리운 정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05** 이 작품에서 ‘산계야목(山鷄夜鶯)’ 길을 들어 돌아올 줄 모르는가 / 노류장화(路柳塲花) 꺾어 쥐고 춘색(春色)으로 다니는가’에서 화자는 임이 오지 않는 이유를 술과 여자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보기>에서도 중장을 보면 화자가 여러 과장

적 상황을 열거하며 임이 오지 않는 이유를 겹겹이 둘러싼 장애물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이 작품의 화자는 떠난 임이 자신을 다시 찾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을 뿐, 임과의 재회를 확신하고 있지는 않다. <보기>의 화자 역시 중장에서 임이 자신을 보러 올 하루가 없냐고 하였으므로 임과의 재회를 확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③ <보기>의 화자는 과장적 상황들을 열거함으로써 임에 대한 화자의 원망과 그리움을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화자의 외로움이나 임에 대한 그리움을 모두 해소하고 있지는 않다. 이 작품의 화자는 임이 부재한 현재 자신의 처지에서 외로움과 서러움을 느끼고 있을 뿐, 이를 해학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 ④ 이 작품의 화자는 임이 혹시 자신이 아닌 남을 사랑하는지 의심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보기>의 화자는 임이 어떤 이유로 자신에게 올 수 없는지를 알고 싶어 하며 이러한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이 작품과 <보기>의 화자 모두 임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을 지니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⑤ 이 작품과 <보기>의 화자는 오지 않는 임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만을 표현하고 있을 뿐, 직접 임을 찾아 나서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보기 | 작품 분석**

작자 미상, ‘어이 못 오던다~’

**[갈래]** 사설시조

**[해제]** 이 작품은 떠난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표현한 사설시조이다. 임이 못 오는 이유를 추측하는 과정에서 여러 장애물들을 과장되게 열거함으로써, 임에 대한 화자의 원망과 그리움을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주제]** 임에 대한 그리움

**06** ‘노류장화(路柳塲花)’는 누구든지 꺾을 수 있는 길가의 꽃이라는 뜻으로 기생을 가리킨다. 따라서 ㉠은 임이 자신을 잊고 기생이나 화류계의 다른 여성과 어울리지 않을까 하는 화자의 걱정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독수공방(獨守空房)’은 혼자서 지내는 것을 의미하므로 임과 이별하고 혼자 있는 화자의 처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 ② ‘암암(黯黯)’은 잊히지 아니하고 가물가물 보이는 듯한 상태를 의미하므로 시각적 이미지를 환기하며, ‘쟁쟁(錚錚)’은 소리가 잊히지 않고 귀에 울리는 듯한 상태를 드러내므로 청각적 이미지를 환기한다.
- ③ 곧 비가 올 것처럼 바람이 불고 구름이 잔뜩 낀 어두운 날씨는 임이 부재한 상황에서 화자가 느끼는 우울한 심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배경이라고 볼 수 있다.
- ④ ‘첩첩(疊疊)’ 쌓인 ‘고개’와 깊은 ‘소(沼)’는 임이 화자를 찾아오기 힘들게 만드는 자연물이라고 볼 수 있다.

**지식 더하기**

**‘상사별곡’에 나타난 연정(戀情)**

‘상사별곡(相思別曲)’은 떠나 버린 임에 대한 그리움과 독수공방(獨守空房)의 서러움을 애상적 어조로 읊고 있는 애정 가사이다. 임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는 상사류의 가사들은 대부분 임금을 흠모하는 연군지정(戀君之情)을 우의적으로 표현한 것들인 데에 반해 이 노래는 그러한 성리학적 이념의 틀에서 벗어나 남녀 간의 순수한 연정을 표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대부들의 전기 가사와 구별된다.

01 ⑤ 02 ② 03 ⑤ 04 ② 05 ①

## [01~05]

## (가) 이달, '불일암 인운 스님에게' [佛日庵贈因雲釋]

[갈래] 한시(5언 절구)

[해제] 이 작품은 조선 선조 때 이달이 지은 한시로 속세와 떨어져 시간의 흐름도 잊고 자연 속에 묻혀 살아가는 삶의 경지를 노래하고 있다. 절집은 구름 속에 묻혀 있고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 길도 쓸지 않는 고요하고 한적한 삶의 공간이다. 바깥손님이 와서 비로소 문을 열어 보니 온 산의 송화꽃이 진 것을 보고 그제서야 계절의 변화를 알아챈다는 내용으로, 속세를 벗어난 삶의 경지를 낭만적이면서도 한 폭의 산수화를 보듯 회화적으로 잘 담아내고 있다.

[주제] 자연 속에 살아가는 탈속의 경지

## (나) 이정, '풍계육가(楓溪六歌)'

[갈래] 연시조

[해제] 이 작품은 자연 속에서 소박하고 욕심 없이 살아가는 삶에 대한 만족감과 속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총 6수의 연시조이다. 화자는 '청풍, 명월, 산, 물'과 같은 자연물과 함께 속세의 물욕을 경계하며 청빈하면서도 즐겁게 살아가는 안분지족의 삶을 추구하고 있다. 이에 반해 속세를 '바람, 비, 칼, 톱'에 비유하여 시련과 고통의 공간으로 인식하며 세속적 삶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주제] 속세에 대한 경계와 자연 친화적인 삶의 추구

## (다) 이상, '산촌 여정(山村餘情)'

[갈래] 수필

[해제] 이 작품은 폐병으로 몸이 나빠진 이상이 1935년 평안남도 성천에서 한 달가량 머물 때 보고 들은 것을 쓴 편지 형식의 수필이다. 도회를 떠나 산촌에서 지내며 산촌의 정경을 묘사하면서도 도회에 대한 그리움을 절절하게 나타내고 있다. 도시적 감각으로 이국적인 단어를 구사하면서도 산천의 모습을 정감 있게 그려 내고 있다.

[주제] 산촌의 정경과 도회에 대한 그리움

01 (나)는 속세에 대해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으나, (다)는 도화와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속세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오답 풀이]

- ① (가)는 '흰 구름(白雲)'과 '송화꽃'과 같은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고요하고 한적한 분위기, 탈속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② (나)의 화자는 자연과 속세를 대비하여 속세에 대한 경계와 자연 친화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다)는 직유법과 은유법 등을 활용하여 산촌 생활에서 본 것들에 대해 묘사하고 있다.
- ④ (가)의 화자는 자연에 동화되어 사는 스님의 모습을 보며 동경하고 있고, (나)의 화자는 자연 속에서의 소박한 삶을 지향하고 있다.

02 초장의 '욕심'은 세속적인 욕망을 나타내어 화자의 비판적인 태도가 드러나는 부분이므로, 자연 친화적인 삶에 대한 욕망과는 거리가 멀다.

[오답 풀이]

- ① 온 산의 송화꽃이 진 것을 보고 세월이 흘렀음을 알게 되었다.
- ③ '바람, 비, 칼, 톱'은 화자에게 시련과 고통을 주는 세속의 부정적인 대상이다.
- ④ 석유 등전에서 '도화지의 석간(夕刊)과 같은 그윽한 냄새가 소년 시대의 꿈을 부릅니다.'라고 하여 도회 생활을 회상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 ⑤ '비망록에 철필(鐵筆)로 군청빛 모를 심어'가는데, 그 위에 인구가 하나하나 탄생한다고 한 것은 비망록 위에 쓰여지는 글씨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03 <제2수>에서는 '작독'을 '맘에 돌꼬.'라는 설의적 표현을 통해 벼슬에 뜻이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과거에 벼슬에 마음을 두었다는 내용을 이끌어 낼 수 없다. <제6수>의 '나중에 실컷 뉘우치나'라는 표현도 속세를 추구하면 후회한다는 화자의 가치관을 드러내는 것이지, 벼슬살이를 한 과거의 삶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답 풀이]

- ① '청풍'과 '명월', '산'과 '물'은 모두 자연을 의미하는 시어로, 화자의 자연 친화의 대상이 되는 존재들이다.
- ② 화자가 손수 닫은 문을 늦도록 열지 않는 것은 속세와의 단절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며, 속세에서 자신을 찾을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이와 연결된 의미라 할 수 있다.
- ③ '작독'은 벼슬과 녹봉을 의미하는 시어이고, '오두미'는 적은 녹봉을 의미하는 시어이므로, 모두 세속적인 삶의 모습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④ '조그만 띠집'은 화자의 소박한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표현이고, '뉘싯대 하나'도 화자의 욕심 없는 삶을 의미하므로 서로 관련이 된다고 볼 수 있다.

04 '때묻은흰나비'는 '신문을찢어버린' 존재이므로 글쓴이를 가리킨다. 여기서 '흰나비'는 자연물인데, 이를 '때묻은'으로 표현하였으므로 자연과 대비되는 도시적 삶의 성향을 지닌 존재, 곧 자연과 대비하여 순수하지 못하거나 병든 자신의 처지를 나타내는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글쓴이가 문명 사회에서 소외되었다는 내용은 (다)에서 찾을 수 없다.

05 ㉓는 바깥 손이 와 문을 열게 되어 세상과 연결되었고, ㉔는 화자가 직접 닫은 것으로 늦도록 닫아 둔 것은 속세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㉓와 ㉔는 모두 세상과 연결되는 통로의 기능을 한다.

[오답 풀이]

- ② ㉓와 ㉔ 모두 탈속의 경지를 드러내는 상징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③ (가)에서 '손'은 문을 통해 스님에게 세월의 흐름을 일깨워 주고 있다. (나)에서 '문'은 속세와 단절시켜 줌으로써 이상적인 생활인 자연에서의 삶을 영위하게 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 ④ ㉓는 세월의 흐름을 알게 되는 계기일 뿐, 스님이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 열어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㉔는 '문'을 늦도록 닫아 놓음으로써 속세와 단절하려는 의지를 보여 준다고 이해할 수 있다.
- ⑤ (가)에서 스님과 세상과의 갈등 상황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관련이 없다. (나)의 화자는 속세를 부정적 공간으로 인식하고 경계할 뿐, 구체적인 갈등 상황이 나타난 것은 아니다.